

평신도

2017년 겨울 ❄️❄️



「Vol.58」

- 인사 회장 인사말
- 만남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평신도가 된다
- 특집 한국, 평신도, 열두 마당 역대 평협 회장을 만나다
- 나눔 평신도 연구 한국 평신도 회년 평협 임원 연수 참가기
- 시 어서 오십시오 주님
- 이야기 우르바노 신학교 생활 체험기 3
- 미니픽션 깊고 눈부신 어두움
- 배움 평신도 양서 영화 속 '인간과 세상'
- 소식 교구평협·회원단체

2017년 겨울 계간 58호

평신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요한 세레자 구상



이나시오 김구정



가이오 김금룡



박병래 요셉



아우구스티노 양한모



불꽃이

20세기를 살아간 다섯 사람 이야기

향기가

되어 2

■ 구상 요한 세레자 시인 겸 언론인, 교수로 재직하며 40여 권을 내놓으면서 구도 시인으로서 문학적 삶을 꽃피웠다.

■ 김구정 이나시오 한국 천주교회사 연구에 여생을 바친 교육자, 교회사 연구와 집필에 열중하면서 여생을 바쳤다. ■ 김금룡 가이오 레지오 마리에의 초석을 놓은 기도의 일꾼. 목포 산정동본당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레지오 마리에 프레스 디움을 발족했다. ■ 박병래 요셉 성모병원의 기초를 다진 의사. 1936년에 설립한 성모병원의 초대 병원장으로 취임해 20년간 봉직하면서 병원의 기틀을 다졌다. ■ 양한모 아우구스티노 공산주의자였다가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평신도 신학자. 가톨릭에 귀의한 후에는 평신도신학과 통일 사목을 화두로 살아 연구했다.

책값: 13,000원 역은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펴낸곳: 도서출판 으뜸사랑 판매처: 가톨릭출판사 직영서점, 인터넷서점(예스24, 인터파크, 영풍 등)

CONTENTS

인사

02 회장 인사말 / 권길중

만남

04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 나권일

10 평신도가 뵈다 / 김주완

특집

13 한국. 평신도. 열두 마당 / 서상덕

17 역대 평협 회장을 만나다 / 김문태

나눔

21 평신도 연구 / 정찬남

23 한국 평신도 회년 / 이창훈

26 평협 임원 연수 참가기 / 위진명

시

28 어서 오십시오 주님 / 신달자

이야기

30 우르바노 신학교 생활 체험기 3 / 박정일

미니
픽션

34 깊고 눈부신 어둠 / 구자명

배움

36 평신도 양서 / 류주희

38 영화 속 인간과 세상 / 이대현

소식

42 교구평협 · 회원단체

발행인 권길중 바오로
담당사제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장 배봉한 세례자 요한
편집위원 김문태 힐라리오, 김주완 라우렌시오
나권일 토마스, 류주희 클로틸다,
명백훈 프란치스코, 서상덕 스테파노
(가나다 순)
제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디자인 · 인쇄 가톨릭출판사

회장 인사말

희년의 축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

권길중 바오로 한국·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인협의회 회장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지금 우리는 교회가 하느님의 창고 문을 열고 베풀어 주신 희년의 복된 한 해를 살고 있습니다. 희년을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한 성구는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입니다. 얼핏 보면 우리 삶의 전 과정을 내가 선택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은 작고 큰 모든 결정은 하느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바로 ‘성소 의식’입니다.

어린이처럼 하느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해야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저절로 배우자가 소중해질 것입니다. 자녀들도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때 그 아이가 지닌 외모나 능력과 관계없이 참으로 소중한 존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제자리를 찾을 때 희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은 모르는 사이에 화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왜 낙태는 안 되는 일인지, 이혼, 조혼과 같은 말이 성립될 수 없는지 그 이유가 명백해집니다.

본당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제대한 분들이 무용담을 들려주는 것처럼 저는 형제들이 들려주는 신앙 체험담을 자주 듣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이끌어 주지 않았지만 어느 날 내 발로 걸어서 가까운 성당을 찾았다든가,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숙명처럼 믿게 되었다든가, 친구가 끊임없이 권해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위해서 등 믿음의 시작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다양함 속에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당신의 교회로 부르셨다(성소)는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머물게 되면 지금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무한히 사랑하신 하느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복음적 어린이’라는 말을 자주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마태 19,1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

는 자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우리도 어린이처럼 하느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물론 고통스럽고 힘든 일까지도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의탁하며 그분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는 부모로부터 말을 배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치는 기도는 모두 아버지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자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실행한다면 아버지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줄 압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밭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오직 전적인 믿음만 있습니다. 형제들이 모여 서로 사랑하는 곳이 우리 아버지의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공부를 통해서 하느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시기의 사회는 반상의 구별이 뚜렷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모두가 하느님 앞에 평등한 형제임을 깨닫고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복자인 황일광 시몬은 그 시대에 가장 천하게 여겼던 백정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을 믿고 교회공동체에 갔을 때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양반들이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람으로 존중해 주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천국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나를 소중한 형제로 맞아들이는 신앙공동체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하느님의 나라이다.” 우리가 희년을 살면서 건설해야 될 본당공동체가 바로 하느님의 나라를 앞당겨 건설한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희년의 영성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제 일터입니다. 저는 스무 살의 어린 나이부터 교사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윗분들의 간섭과 박봉 문제를 해결하려고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때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천주교로 입교한 뒤부터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서 이 길이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제자들을 대할 때 온전한 기쁨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학급이나 분단이라는 단위 조직으로 만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눈높이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에 나도 행복했습니다.

더러는 이런 나를 시샘하는 상사나 동료들 만나게 됩니다. 그런 때면 나를 이 길로 불러주신 원천인 아버지 하느님께 여쭙니다. 그래서 자주 감실 앞에 앉게 됩니다. 그분은 내 잘못을 단 한 가지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 역시 하느님이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청지기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학생을 지도하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누렸습니다. 결국 30대 중반부터 교육연수원에서 동료 선생님에게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 등을 강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희년의 영성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 때 모든 형제들이 아버지 앞에서 평등을 누리면서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카 4,18-19). 

만남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한귀석 바오로 전주교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장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들의 마음으로 느끼며

대담 · 정리
나권일 편집위원



전주교구 평신도들에게 2017년은 여러모로 특별한 해였다. 1937년 4월 13일 자치교구로 설정된 전주교구가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였기에 행사도 많았고, 27년 만에 새 교구장을 모시면서 일치를 이뤄가는 숨 가쁜 여정이었다. 크고 작은 행사들을 물 흐르듯이 매끄럽고 알차게 치러낸 데는 평생을 하느님께 순종하며 살아온 한귀석 바오로(67) 회장의 노고와 경륜이 있었다. 전주교구 평단협의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자료협조를 해주신 한귀석 회장과 유광용 사무국장께 감사드린다.



▲ 한귀석 바오로 회장. 모자를 벗고 사진 촬영에 응한 한 회장의 얼굴은 평화롭고 인자한 큰바위 얼굴의 모습이었다. 열성적으로 전주평단협의 활동에 대해 말하는 한귀석 회장. 벽면에 붙어 있는 일정표가 빼곡하다.

지난 11월 27일 저물녘, 바스락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가 듣기 좋은 초겨울이었다. 남녀노소가 한복을 입은 관광객으로 떠들썩한 전주 한옥마을과 달리 건너편 언덕에 소담하게 자리 잡은 전주교구청은 고즈넉해서 조용히 산책하고 묵상하기에 좋았다. 교구청 2층 전주 평단협 사무실에서 한귀석 바오로 회장을 만났다. 해외 성지순례를 막 다녀오신 뒤라 여독이 풀리지 않았을 텐데도 반갑게 맞아주셨다.

❖ 얼마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지요?

“터키와 그리스 등 바오로 사도께서 전도여행한 길을 따라 순례했습니다. 전주교구에서 참여한 27명을 비롯해 서울대교구와 수원교구에서 오신 분 등 모두 33명의 형제자매들이 코린토와 테살로니카 등 성서 속의 공동체가 있었던 곳을 순례하며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10박 11일의 짧지 않은 일정을 성서학자이신 정태형 갈리스토 신부님께서 이끌어주셨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성서를 봉독하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가며 성서학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더 충실하고

깊이 있는 순례길이 되었지요.

정 갈리스토 신부님은 우리나라에 ‘거룩한 독서’를 보급하신 분이데, 광주가톨릭대 교수신부를 하시다가 제 본당인 전주 효자동으로 오시면서 성서에 더욱 맛을 들이게 됐습니다. 정 신부님은 지금은 ‘한님성서연구소’에 계시는데, 평신도 성서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정 갈리스토 신부님과 저는 인연이 깊어요. 1960년대에 전주에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성당에서 복사를 같이 썼거든요.(웃음) 그때는 전주에 전주 중앙 성당과 전동 성당 등 2개 성당만 있을 때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되기 전이라서 신부님께서 라틴어로 미사를 했어요. 그리고 보니 벌써 50여 년 세월이 훌쩍 지나갔네요.”

여행지에 가면 성당부터 먼저 찾는 신앙인

한귀석 회장은 모태 신앙이다. 전주교구가 운영하는 4개 중고등학교(해성중교와 성심여중교)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해성고등학교에서는 교감과 교장으로 헌신했고, 성심여교 교장을 끝으로 3년 전에 정년퇴직했다. 학교에서는 물리를 가르쳤다. 재직하는 동안 바쁜 틈에도 방학 때 잠깐씩 짬을 내어 아내(오윤숙 헬레나)와 함께 배낭여행을 했다. 호주·뉴질랜드·동유럽 여행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여행 중에도 날마다 성당을 찾지 않으면 좀이 쑤시는 한 회장은 외국의 호텔이나 숙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 지도 앱으로 성당부터 찾았다. 그래서 11박 12일 중 9일을 매일 성당을 찾아 미사를 드리기도 했단다. 여행을 다닐 때도 성지를 중심으로 다니다 보니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했다.

❖ 신앙은 어떻게 갖게 되신 건가요?

“제가 어릴 적 어머니께 말씀 듣기로는 돌아가

신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3대, 제 아들이 4대, 손자들까지 하면 5대째 믿는 집안이 됐지요. 제가 1남 2녀를 두었는데, 모두 유아세례를 받게 했어요. 감사한 것은 아들과 두 딸이 모두 출가했는데, 사돈 되시는 분들도 모두 교우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아이들도 교우와 만나기 위해 노력을 했으니 그렇게 된 것이죠. 자녀들이 어린 손주들을 데리고 주말마다 꼬박꼬박 성당에 가는 게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생각하면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복사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를 이어서 복사를 하게 됐으니 참 기쁘다. 잘해라. 새벽에 네 스스로 일어나서 성당에 가거라.’고 했어요. 그때는 저도 본당 청소년분과장으로 일할 때라 바빴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아들이 자는 방의 방문을 한 번 두드리려고 일어나라고 말하고는 성당에 갔는데, 미사 끝날 때까지 아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나를 깨워서 안 데리고 갔다.’며 울고불고 눈이 툭툭 부었어요.(웃음) 그런 일을 겪은 뒤에는 제가 일어나라고 안 해도 아들이 알아서 성당을 가더라고요. 한 번 뼈아프게 겪은 뒤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복사 당번이 돌아오는데, 그때부터는 방문 노크만 해주면 알아서 잘 일어나곤 했어요. 그 뒤부터는 주일학교 갔다 왔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컸어요. 주님께서 알아서 잘 키워주신 것 같아 감사하지요.”

효자동 본당과 학교, 집을 시계추처럼 오가며

한귀석 회장의 신앙과 봉사활동의 뿌리는 깊었다.

중고등부 학생회장, 전주교구 대학생연합회장, 한국 가톨릭대학생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사회에 눈을 뚫었다. 대학생 신분으로 1972년 10월유신을 전후해서는 시대가 시대인지라 여러 가지 말 못 할 어려움도 겪었다고 했다. 결혼한 후에는 집안의 안정을 위해 전주 효자동에 땅을 마련해 직접 집을 지었다. 이후 30년째 효자동 성당과 학교와 집을 시계추처럼 오가며 살아왔다고 했다.

효자동 본당에서 청소년분과장, 전례분과장, 선교분과장을 맡았고, 정년퇴직을 앞두고 본당 총회장을 맡아 봉사하다 전주교구 평단협의회장으로 일한 지만 2년이 됐다고 했다. 전주평단협 회장을 맡기 전에도 수십 년 전부터 전주평협 분과장, 부장, 사무국장으로 봉사하며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치러왔다고 했다. 1,300여 명이 참석한 전주교구 여름 신앙학교, 5,000명이 모인 청소년성체대회도 잘 치러냈다. 30년 전, 5만 명이 참석했던 전주교구 설정 50주년 행사의 식전행사를 맡아서 무탈하게 행사를 마쳤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고 했다.

❖ **올해 전주교구는 김선태 교구장 착좌식 등 큰 행사가 많았습니다. 회장님의 경륜과 경험이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님이 5월 13일 주교 서품과 함께 전주교구 제8대 교구장으로 착좌하며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행사장인 군산 월



▲ 제8대 전주교구장이 된 김선태 주교의 서품미사와 착좌식. 전임교구장 이병호 주교의 뒤를 이었다.

명체육관은 사제단과 수도자, 신자 4,000여 명으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지요. 더구나 저희 전주교구가 자치교구 설정 8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자 파티마 성모 발현 100주년 기념일이어서 기쁨이 더 컸습니다. 우리 교구민들은 전임 교구장이병호 빈첸시오 주교님에 이어 새롭게 교구를 이끌어갈 김선태 교구장님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한마음으로 은총을 청했지요. 그날 과분하게도 제가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지요.

이병호 주교님께서 27년 동안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저희 안에 깊은 영성을 심어주시고 온 힘을 다해주시어 우리 교구가 큰 발전을 이루게 해주셨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선태 새 주교님께서 순교자의 고장인 전주교구가 자치교구 설정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순교자의 터에서 태어나셔서 순교자의 삶을 닮아 사시려는 분이시니 저희가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교구민 모두가 희망과 기대 속에서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답하신 새 교구장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 이 고장에 하느님 나라를 널리 선포하고 놀라운 변화를 이뤄야겠다는 다짐을 한다는 내용으로 축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그날 행사는 하느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되었어요. 제가 다른 교구의 주교님 착좌식에도 많이 가봤지만 그날 우리 전주교구의 착좌식이 가장 멋있게 잘된 것 같아요.”(웃음)

평신도 희년 맞아 전주교구 평신도 상본 제작

❖ **새 전주교구장께서 신년 사목교서와 함께 평신도 희년을 선포하신 것으로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22일에 교구 설정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복음화를 강조하시면서



▲ 전주교구 평단협이 평신도 희년을 맞아 제작한 상본. 최초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 복자와 유항검 아우구스티노 복자 두 분의 초상을 담았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로마 12,2)라는 사목교서를 발표하시고, 평신도 희년을 선포 하셨습니다. 우리 전주교구는 평신도들이 평신도 희년을 맞아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와 전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교구장님이 지정한 8곳의 순례지(전동 성당, 전주순정이, 천호성지, 여산성지, 고창개갑장터, 초남리, 치명자산, 나바위 성당)를 찾아 한 해 동안 순교자 정신을 함양하는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평신도 희년에 맞는 전주교구의 상본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 복자와 유항검 아우구스티노 복자 두 분의 초상을 담고, 뒷면에는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도문’을 담았지요. 총 3만 5천 장을 인쇄해 본당 신자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 **올해 전주교구 설정 80주년을 맞아 전주평단협에서 의미 있는 행사도 치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전주교구 평신도가 주체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평신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28일에 ‘평신도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대형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이영

춘 호남교회사연구소장 신부님이 발제를, 오용석 한국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장께서 토론의 좌장을 맡아 이끌어주셨지요. 자유토론 때는 주어진 시간이 부족할 만큼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저희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제와 평신도, 수도자, 본당회장, 교구단위 남녀 단체장 등이 잘 안배되도록,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명망가를 모시는 것보다는 전주교구의 평신도들이 생활 속에서 체험했던, 생생한 것을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저 역시 지난 2006~2016년 10여 년간 교구의 다양한 사목적 과제들을 교세통계와 설문조사 등을 활용해 진단한 자료를 통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세 직분이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며 각자의 고유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지요.



▲ 전주 평단협이 마련한 자치교구 설정 80주년 기념 세미나. 10월 28일에 ‘평신도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세미나가 끝난 뒤에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을 했습니다. 권길중 한국평협 회장님을 모셔서 운동의 의미에 대해 귀한 말씀도 듣고, 평단협 임원진과 회원, 36개 본당 회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장님 앞에서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참석한 전주교구 교구민들이 참 평신도의 모습으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전주교구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전주교구 평단협 회원들의 워크숍 장면.



▲ 전주 평단협은 2018년 한 해 본당 회장들을 위한 교육과 연수에 주력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7년 9월 천호피정의집에서 개최한 평단협 회장단과 본당 사목회장 합동연수.

47년 역사의 전주교구 평단협에 35개 단체 참여

전주교구 평협의 역사는 1970년 '전주교구 사목협의회'로부터 시작된다. 김규승 베드로 초대회장을 시작으로 2010년 21대 평협(회장 강상근 미카엘)까지는 전주평협으로 활동했다가 2014년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전주 평단협)으로 개편돼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여성연합회와 꾸르실로, 레지아, 가톨릭교수협의회, 농민회 등 3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귀석 회장은 현재 전주 평단협 2대 회장으로 요안루갈다회 대표로서 2016년 1월부터 평단협 회장의 소임을 맡았다고 한다.

2018년부터는 평단협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박성팔 안드레아 지도신부의 가르침 아래 평협 소속단체와 본당이 함께하는 평신도단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주교구 96개 본당 회장들도 전주교구 평단협에 참여함으로써 평단협이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2018년 1월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임원진을 선출할 예정이다. 2년간의 평협 회장직 소임을 다한 한귀석 회장의 감회는 어떠할까?

❖ 평협 회장의 직분이 힘들고 고통으로 다가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제가 이런 정도의 일을 하면서 고통스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고요.(웃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순간순간이 기쁘고, 주님께서 많은 은총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사실 송구한 것은, 젊을 때 제게 본당 회장 맡으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때는 받지 못하고 고사했어요. 그때 제 생각에는, 인문계학교 교감은 학생들을 위해 대학입시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 큰 고등학생 144명을 데리고 입시교육을 하느라 기숙사 사감을 5년씩이나 했어요. 그때는 집에는 일주일에 한번만 갔어요. 그리고 나서 교장으로 재임하며 정년을 2년 남겨놓고 본당 회장을 맡았고, 전주교구

평단협 회장을 맡아 2년간 봉사할 기회를 얻었으니 주님께서 제가 봉사할 시간까지 알아서 잘 맞춰주신 셈이잖아요. 마치 톱니바퀴가 딱딱 맞아가듯이 말이죠.(웃음)

감사한 것은, 제 아이들 셋이 다 대학에 갔는데, 부모로서 학원 한번 보내지 못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가게 됐고, 형편이 안 돼 대출받아서 학비를 대는데, 혼자 벌어서 살림하니 제법 빚을 졌어요. 다행히도 정년 되기 1년 전에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또 고마운 것이, 아내가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며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잘 따라준 것이 참 고마워요.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넘치게 주신 것은 아니지만 제게 절대 부족하게 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왜 그렇게 저를 이뻐하셨는지 몰라요.(웃음) 제 아이들이 다 성당 다니고, 손주들도 다니고, 저도 지금 건강하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자녀들이 따라해

❖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평신도의 신앙, 평신도의 영성이 뭘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눈이 와서 발이 무릎까지 푹푹 빠졌어도 기어코 성당에 갔어요. 철들기 전인데, 그때는 하느님만 내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니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신앙은 대물림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자녀들이 나를 보고 따라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부모가 말끝마다 주일학교 가라, 성당 가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알게 해주신, 제 어머니의 신앙에 감사해요. 어머니가 신앙

에 있어서는 제게 엄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눈물 날 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감사하지요. 지금도 하느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일(평단협 회장)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놀러 다닐 것밖에 더 있겠어요.(웃음)”

❖ 새해에 가장 중요한 전주 평단협의 사업은 무엇인가요?

“신앙선조들의 삶을 본받아 우리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것은 평신도 회원 살기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운동과 연관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몇 년간 교구와 본당이 가까워지는 통로가 많지 않았어요. 교구의 일과 본당의 일이 연계성 있게 잘 이어지게 하기 위해 본당 회장단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해는 본당 회장님들을 위한 교육과 연수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만남이 끝나고 귀경하는 길. 한 바오로 회장께서 전주의 깔끔한 한정식 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함께해 주시더니 당신의 차를 직접 운전해 서울 가는 고속버스터미널까지 배웅해 주셨다. 차 안에서 한 바오로 회장께서 주신 자료 중에 전주교구장님의 사목교서 맨 첫 장을 차지하고 있는 ‘전주교구 기도문’이 눈에 띄었다. “주님! 저희가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들의 마음으로 느끼며, 성령의 힘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그리고 보니 전주를 방문하고 머무른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들의 마음으로 느낀 소중한 ‘나눔’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



평신도가 된다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전국협의회

대담 · 정리
김주완 편집위원

가장 최근에 한국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에 가입한 단체가 있어 축하 겸 소개를 하고자 남명수(임마누엘) 회장을 만났습니다. 바로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전국협의회'입니다. 협의회 회원들은 모든 노동자들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태어난 고귀한 존재임을 일깨워주고 이 사회의 주체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이끌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노동 환경에도 믿음 안에서 어떻게 가정과 이웃과 일터, 더 나아가 세상의 복음화에 투신했는지, 또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등등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 남명수(임마누엘) 회장.

❖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전국협의회'의 태동 배경과 설립 목적을 들려주세요.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Christian Workers Movement, 가노장)는 1958년에 처음 한국에 도입된 가톨릭노동청년회(J.O.C, 지오세)를 기반으로 합니다. 1960년대 들어 급속히 늘어난 회원들이 30세가 넘거나 결혼으로 더 이상 적절한 활동을 못 찾게 되자 지오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1964년 1월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름은

'한국노동가정운동'이었는데 함께 미사를 드리고 회합을 가졌죠. 그러다가 1964년 3월 '국제 가노장 연합(MMTC)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고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주교회의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전국 단체 설립과 회칙을 승인받았고, 한국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에는 금년 10월에 가입했죠.

가노장의 설립 목적은 복음 정신과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따라 노동계의 복음화를 위해 관찰·판단·실천으로 나의 변화를 꾀하고, 이웃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이루고자 노동자 가정 공동체와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 장년의 개념이 예전과 많이 바뀐 듯합니다. '가노장'에서는 현재 장년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고 있나요?

대개 서른에서 마흔 안팎의 나이를 장년이라고 규정해 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청년들의 결혼도 늦어지고 예전보다 일찍 은퇴한



▲ 스페인 국제 총회 참석자 일동 및 추기경에게 50주년 기념 자료집을 봉정하는 남명수 회장.



노동자들이 재취업을 해야 하는 등 해서... 추세에 맞춰 30~50대를 중년, 50~70대를 장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최고령 회원도 거의 칠십 가까이 되십니다.(웃음)

❖ 각 교구에 설립되어 있는 '가노장'의 조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1970년 통계를 보면 서울을 비롯하여 수원·대구·대전·부산·전주·인천 등 7개 교구 27개 팀 649명이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후 IMF 등의 여파로 활동이 침체되기도 했지요.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현재 서울·대구대교구와 대전·인천·마산교구에서 꾸준히 활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 '가노장'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주요 활동은 무엇인지요?

저희 조직 구조가 팀 단위거든요. 보통 3~4가정이 한 팀을 이룹니다. 매일 모여서 '가노장' 모토인 관찰·판단·실천이라는 복음적 방법에 따라 관찰하고, 복음에 비취 판단하고, 사랑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실생활에 와 닿는 다양한 주제로도 생활 반성과 복음 나눔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벽돌 없는 학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전체 회원들이 다 모여서 함께 드리는 월례 미사겠지요. 그밖에 연례행사로는 피정, 성지순례, 매년 5월 1일 메이데이 행사, '양질의 노동' 캠페인 참가 등

이 있습니다. 매년 10월 7일에 열리는 '양질의 노동'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에 저희 가노장에서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지키며 일할 수 있는 당당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5년부터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 '양질의 노동의 날' 캠페인 (2016년 10월 7일 부평역, 2017년 10월 7일 광화문).

❖ 지금까지 해 오신 활동 가운데 특별하거나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회원들이 참 많이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가노장 설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2013년 9월 시흥동 성당에서 기념 마련 콘서트를 열었고, 2014년 5월 11일에는 신



▲ 가노장 설립 50주년 기념행사(2014년 5월 11일, 돈보스코 센터).

길동 살레시오회 성당에서 기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때 주제가 '역사의 50년, 희망의 50년'이었는데, 금년 6월에 같은 이름으로 가노장 50주년 역사 자료집을 펴냈습니다.

❖ 다른 국가의 '가노장'들과도 교류하고 있지요?

가노장은 교황청 인준을 받은 국제 조직으로 본부는 벨기에에 있고, 전 세계 회원국은 50개국입니다. 동아시아 4개국(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세미나가 2년마다 열리는데, 2014년 5월 10일에는 싱가포르 4명과 일본 3명이 방한하여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국제 총회와 세미나는 4년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스페인 아빌라에서 '양질의 노동을 위한 땅, 지붕(집), 그리고 노동'이라는 주제로 42개국 120명의 대표가 참석했지요.



▲ 전국대표자 회의(2017년 1월 15일).

❖ 향후 '가노장'의 계획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팀원을 이끌어갈 수 있는 '평신도 동반자 양성'을 통해 가노장의 핵심인 팀 회합의 활성화, 조직의 혁신과 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또 신자 대부분이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교회 내에서조차 '노동'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갖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를 해소하여 교회와 노동 세계가 가까

워지게 하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울리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인천교구에만 있는 노동자 주일이 전 교회적으로 확산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 전국수련회 품바(2015년 7월 25~26일).



▲ 전국수련회(2017년 7월 29~30일).

❖ 전국의 평신도들, 특히 장년의 신자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느 노교수님이 "백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까지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연령대도 장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학생수도 줄어들고, 청년들의 활동도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미사 참석률도 점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에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평협 설립 50주년 맞이 '한국, 평신도, 열두 마당'

정리
서상덕 편집위원

"하느님의 대답, 응답을 올바르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모두가 순교 성인들의 참다운 삶 · 순교정신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II. 순교 역사 속 평신도

"예수님에 대한 진리는 한국 땅에도 왔습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가져온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매우 신기하게도 하느님 은혜는 여러분의 선조들을 당초에는 하느님 말씀의 진리에 대한 지성적 탐구로 이끌었다가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구세주에 대한 산 믿음으로 이끌어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갈망하던 여러분의 선조들은 1784년에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북경으로 보냈고 그는 거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좋은 씨앗으로부터 한국에 첫 그리스도공동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평신도에 의해서만 세워졌다는 점으로 보아 교회 역사에서 유일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신생 교회는 아직 어리면서도 믿음에는 그토록 굳세어 몹시 사나운 군란을 거둬들여 견디었습니다. 그리하여 한 세기도 채 못 되어 1만 명을 헤아리는 순교자를 자랑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가톨릭신문 1984년 5월 13일자에서).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식 때 거행된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식'을 주례한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다.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시성식. 그 자리에서 교황은 '평신도', '순교'라는 말을 수없이 입에 올렸다. 그만큼 한국 교회는 이 두 단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을 지낸 고(故) 최석우 문시놀은 "순교자 성인은 그 시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대답"이라고 했다. "하느님의 대답, 응답을 올바르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모두가 순교 성인들의 참다운 삶 · 순교정신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7 일곱째 마당 - 순교로 믿음의 씨 뿌리다 V

유대철 베드로(1826-1839)

1839년 4월 18일(음력 3월 5일)에 시작돼 그해 11월 23일까지 이어진 기해박해는 4대 박해 중 가장 많은 70명의 성인을 낸 역사로 신앙 후손들에게 아로새겨져 있다. 그 가운데 유대철 베드로는 이 시기 70위 성인 가운데 백미 같은 존재다.

“이런...? 이런 정신나간 놈!”

숯을 입에 처넣겠다는 엄포를 놓고 부젓가락으로 시뻘건 불뚱이 튀는 숯덩이를 집어들던 옥사장은 유대철이 태연하게 입을 벌리자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에이, 독한 놈. 꿈에 볼까 두렵네.”

흙을 털고 일어선 옥사장은 유대철을 뚫어지도록 쳐다보다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자리를 피했다.

‘뭔가 잘못된 게야, 뭔가…….’

옥사장의 머리에서는 이런 생각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미 대철은 열셋이라는 어린 나이로는 상상도 못할 고문을 여러 차례 견뎌낸 터였다.

문초 14회에 14차례의 고문을 당하는 동안 태형(笞刑)을 600대도 넘게 맞고 곤장 가운데 가장 크다는 치도곤(治盜棍)도 마흔 대 넘게 맞았으니 제자리에 붙어 있는 뼈가 없고 살이 헤어질 대로 헤진 몸은 그야말로 피투성이였다.

또다시 형리들이 달려들어 옷을 벗기고 허벅지살을 뜯어내는 고문을 해댔다.

“이놈, 이래도 천주교를 믿겠느냐?”

“믿고말고요. 그런다고 제가 천주님을 버릴 줄 아세요.”

아무리 고문을 해대도 대철의 얼굴에서는 평화스런 표정이 스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대철이 제 몸에 헤어져 매달려 있던 살점을 떼어내 관장 앞에 던지자 이를 지켜보던 관원들 사이에는 두

려운 기색이 떠올랐다.

지난여름, 역관이던 아버지 유진길이 잡히자 자청해 포도청을 찾은 후 이어지고 있는 고문은 그렇게 한철을 넘기고 있었다.

관헌들은 그의 죽음으로 인해 군중이 자극을 받을까 두려워 감히 공공연하게 처형하지 못했다. 대철이 고문을 못 이겨 죽을 줄 알았던 것이다.

가을조차 한 고비를 넘기려는 10월 31일, 대철의 가련한 몸뚱이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던 옥사 안으로 검은 그림자가 쑥 들어왔다. 형리는 이내 대철의 목에 줄을 감아 힘을 주기 시작했다. 아물아물해져 가는 대철의 눈앞에는 슬하게 그리던 나라가 다가오고 있었다. 줄에서 풀려난 그의 얼굴에서는 만족스러운 웃음이 피어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갖은 고문과 회유를 기적과도 같은 용기로 이겨낸 유대철은 한국이 낳은 성인 중 가장 어린 13살의 나이로 성인 반열에 들게 됐다.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식’에 앞서 1984년 5월 4일 광주를 방문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강론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들은 한국 천주교 신자로서 이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 여러분을 받쳐주고 이끌어주고 고무시킬 훌륭한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찾았을 뿐더러 많은 경우 유민으로 살면서도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이를 남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정하상 바오로의 지칠 줄 모르는 사도직 수행이나 어린 유대철 베드로의 순전한 용기를 보면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교황에게도 그리스도에 대한 꺾일 줄 모르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유대철 베드로의 삶은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이다.

8 여덟째 마당 - 순교로 믿음의 씨 뿌리다 VI

이성례 마리아(1801~1840)



▲ 이성례 마리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 교회가 길러낸 여성 평신도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삶을 살다간 이를 꼽는다면, 그 가운데 빠지지 않을 이가 이성례 마리아일지 모른다.

이성례 마리아는 충청도 홍주현에서 태어났다. ‘내포 사도’ 이준창(루도비코 곤자가)의 사촌 누이인 이 벨라니아의 조카딸이었다. 어려서부터 씩씩하고 총명했던 그는 17세 때 최경환과 혼인해 홍주 다락골 새터에 살면서 21세 때 최양업을 낳았다. 그 뒤로도 슬하에 다섯 자녀를 뒀다. 나이 어린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지혜롭게 가정을 꾸렸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한양으로 이주했으나, 박해의 기미가 보이자 강원도 금성현(현 김화군), 경기 부평 수리산 뒤뜰이(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대) 등지로 옮겨 다녀야 했다. 그동안 만아들 최양업은 신학생으로 선발돼 마카오로 떠났다.

신앙 때문에 모든 재산과 고향마저 버리고 낯선 타향으로 전전하며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 이성례는 기쁘게 이겨냈다. 어린 자식들이 굶주림에

지쳐 칭얼거릴 때면 요셉과 마리아 성가정이 이집트로 피난하던 이야기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에 오른 이야기를 들려주며 인내의 덕을 갖추도록 독려했다.

수리산에 정착한 뒤로는 남편을 도와 교우촌을 일구는 데도 남다른 재능을 발휘했다.

1839년 닥친 기해박해는 피하지 못했다. 박해가 본격화되자 남편 최경환은 한양을 오가며 순교자들의 시신을 수습했고 그는 그런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자녀들을 보살폈다.

그러던 중 포졸들이 수리산 교우촌으로 들이닥쳤다. 부부는 음식을 준비해 포졸들을 대접한 뒤 어린 자녀 다섯을 데리고 교우 40여 명과 함께 한양으로 향했다. 포도청에 압송된 이성례는 젓먹이와 함께 갇혀 고문을 당해야 했다. 300대 이상의 곤장을 맞으며 팔이 부러지고 살이 너털너털하게 찢어지는 고통을 견뎌냈다. 하지만 굶주리는 갓난 아이를 지켜보는 고통은 그를 흔들리게 했다. 배교를 선택해 집으로 돌아가고 만다.

하지만 장남이 마카오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다시 체포돼 형조로 압송된다. 함께 갇힌 교우들의 권면으로 용기를 낸 그는 배교를 거두고 젓먹이를 하느님께 바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

1840년 1월 31일 서울 만초천 하류 당고개. 칼앞에 선 이성례는 그 순간 무엇을 떠올렸을까. 당고개로 끌려가기 직전 젓도 물리지 못한 채 죽은 막내 스테파노였을까? 이국땅에서 사제가 되기 위해 정진하던 만아들 최양업(토마스)이었을까?

최양업이 마카오로 떠난 뒤 둘째 최의정(야고보) 등 자녀들에게 남긴 그의 마지막 유언이 다블뤼 주교의 「조선 주요 순교자전」을 통해 전해온다.

“이제는 다들 가거라. 절대로 천주님과 성모님을 잊지 마라. 서로 화목하게 살며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서로 떨어지지 말고 만형 토마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라.”

특집

한국평협 설립 50주년 맞이 - 역대 평협 회장을 만나다【한홍순 회장】 공부하는 평신도가 되어야

대담 · 정리
김문태 편집위원



▲ 124위 복자 전체도 "새벽 빛을 여는 사람들".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처음부터 굶주리는 젃먹이를 뿌리치고 순교했다면 그는 일찌감치 성인이 됐을 뿐 아니라 '위대한 순교자'로 남았을 것이다. 젃먹이 막내아들 때문에 배교까지 할 정도로 모진 육정을 끊지 못했던 복녀 이성례 마리아는 그 모정까지 하느님께 봉헌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신앙선조들의 열절한 순교의 삶은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벽찬 감동을 전해준다. 순교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믿음은 사랑이 헤쳐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일깨움을 준다.

“한국 순교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2코린 4,10-11)”(1984년 5월 6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식' 강론).
☞



▲ 한홍순 회장.

2018년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설립 50주년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역대 평협 회장을 만나 지난 50년을 회상하는 한편, 앞으로의 50년을 전망하는 시간을 갖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지난 11월 14일 서울 명동에 자리한 가톨릭회관 5층 평협 사무실에서 한홍순 토마스 회장을 만났다. 그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제16대, 제17대 평협 회장을 역임하였다. 1943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교황청 평신도평의회 위원, 주 교황청대사를 지낸 교육자이자 외교관답게 차분하면서도 조리있게 자신의 삶을 물 흐르듯 피력하였다.

❖ 세례를 받으신 계기와 이후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인 1955년에 세례를 받았어요.(그는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다.) 다른 동년배들보다 1년 일찍 학교에 들어가는 바람에 연도가 그렇게 되지요. 그때 돈암동 성당에 다녔는데, 본당신부님이 아일랜드 골롬반 외방선교회 신부님이셨어요. 돈암동 성당이 혜화동 성당에서 분당해서 얼마 안 됐는데, 돌아보면 상당한 은총을 베풀어주시는 곳이라 생각해요. 중학교 1학년 말에 본당에 수녀원이 생겼는데, 그때 포교 성베네딕도 수녀회에서 수녀님 두 분이 파견돼 오셨어요. 한 분이 독일분이

셨는데, 북한 공산 치하에서 수도생활을 하다 쫓겨나셨다고 해요. 수용소 생활도 하셨고요. 나중에 독일이 교섭해서 본국으로 송환됐는데, 다시 한국으로 진출하신 거예요. 그 수녀님이 교리교사셨어요. 그분이 가르쳐주신 교리 내용이 지금까지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기도법도 가르쳐주셨지요.

서울에 레지오 마리아가 도입되었는데, 처음으로 우리 본당으로 왔어요. 본당신부님이 아일랜드 분이래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고1 때 소년 브레시디움 단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레지오 마리아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뵈는 활동이라 겁날 게 없었어요. 대학교에 입학해서 본



▲ 2008년 평신도 봉사자 양성을 위한 평신도 학교 '공의회 과정.'

당의 성인 브레시디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연령 기준이 만 18세라고 해서 기다렸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서울 상대에는 가톨릭학생회가 없어서 서울고등학교에서 레지오 마리아를 하던 이세환이라는 친구하고 둘이 학생과에 가서 학생부를 열람했어요. 2학년에서 손병두, 3학년에서 유열을 찾았지요. 유열 회장 다음에 손병두 회장, 그 다음에 제가 회장을 했어요.

우리가 활동할 때는 성경이 신약만 있었고, 구약이 없었어요. 구약이 날권으로 나올 때여서 나올 때마다 사서 통독했어요. 해설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혼자보다 같이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당에서 성경공부 클럽을 만들었어요. 바오로서원에 자주 가서 복음서 질문지 영어판을 제가 번역하고 등사해서 <복음연구 가이드>라는 제목을 붙여서 읽었어요. 대학 가톨릭 학생회에서는 영어 성경 읽기를 했고요. 그 시절이 참 좋았어요.

대학 2, 3학년 무렵이 되자 공부가 하고 싶었고,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경제학을 하고

싶었는데, 신앙을 접목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때 마침 광화문의 원서 파는 가게에서 새무엘 슨이라는 경제학 교수가 쓴 『경제원론』이라는 입문서를 들쳐보다가 당시 레오 13세 교황의 회칙에 대한 설명을 봤어요. 『Rerum Novarum』이라고 '새로운 사태'라고 번역하는 건데,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교회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이 문서는 고용주들의 무절제한 경쟁의 탐욕에 무참히 희생된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가톨릭교회는 자연의 재화와 은총의 보화가 인류의 공동 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빈곤 구제 단체들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을 직접 도와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아!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사회교리라는 것이 사회과학과 신앙이 함께 만나는 이상적인 분야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기 위해 1966년에 예수회가 운영하는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교로 유학을 간 거예요. 거기서 사회교리를 체계적으로 수강하고, 사회과학을 전공하고 1971년에 귀국했지요.

❖ 교회에서 봉사하시게 된 계기와 평협 회장으로서의 지향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1983년에 청담동 본당 총회장을 했어요. 그리고 1984년도에 임기 5년인 '교황청 평신도평의회' 위원으로 임명되었어요. 그러던 1986년에 동경에서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FABC)'를 했는데, 1987년에 평신도라는 주제로 로마에서 개최되는 '제7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를 아시아 차원에서 준비한다는 성격이었어요. 아시아는 동아시아·남아시아·동남아시아 세 지역으로 나뉘었는데, 평협에서 세계 동아시아 평신도 대표로 그 회의에 다녀오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평협 대외협력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받아서 회의에 참석해서 그때부터 평협과 인연을 맺었지요. 본격적인 평협 활동은 1988년부터였어요. 박정운 회장이 선임되면서 도움을 청했거든요. 그 이후 손병두 회장이 서강대 총장으로 가면서 제가 2005년 8월부터 회장 직무대행으로 남은 임기를 하게 됐지요. 2006년 1월에 정기총회에서 정식으로 회장으로 선임되었고요.

저는 평협 회장직을 맡으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1986년의 '아시아 주교회의연합회'도 그랬지만, 1987년에 '세계주교대의원회의'를 가진 다음해에 『평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문헌이 나왔어요. 그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현대화한 평신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볼 수 있어요. 1999년 '아시아 주교 시노드' 이후에는 『아시아 교회』가 나왔고요. 전 세계에서 평신도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한국 천주교회는 평신도가 세운 교회예요. 그러나 어떤 평신도냐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의 결과물은 행동이에요.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다.'

저는 공부하는 평신도가 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 기회가 되는대로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개

최하는 데 힘썼어요. 그리고 공의회예요. '공의회에 비추어 본 한국 교회의 실상은 어떠한가?' 그래서 공의회 학교를 시작한 겁니다.(실제로 2007년 3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30장으로 이루어진 평신도학교 공의회 과정 교육에 5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이어 2009년 3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개설된 평신도학교 공의회 과정 교육에는 200여 명이 참석하여 68명이 수료하였다.)



▲ 2008년 우리성가 공모 시상.

또한 한국 천주교회는 보편교회의 일환이지만, 이 땅에서 씨 뿌리고 꽃 피우고 열매 맺기 위한 한국적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공의회 정신이지요. 그래서 '우리성가 가사' 공모를 시작했어요. 성가 가사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작곡 공모를 했어요.(실제로 2006년 12월 8일에 제1회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에 100여 작품이 응모하여 5작품을 시상하였고, 2009년 11월 9-10일에는 명동 성당에서 서울대교구 성가 합창제를 열었다.) 심사위원은 평신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평신도 작곡가를 모셨는데, 나중에는 공모에 당선된 성직자도 한 분 들어오셨지요. 이렇게 우리성가에 신경을 쓴 데는 계기가 있었어요. 1995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세계 청년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마침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25주년 기념 총회도 거기서 같이 열렸어요. 개막미사 전에 필리핀식의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데 참 잘하더라

고요.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감탄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저런 것이 없는지 돌아보게 됐지요. 우리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땅에 우리 신앙의 토착화를 하는 데도 평신도의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평신도』 잡지도 소식지 형태로 제가 시작했거든요.

❖ 교회 내에서 평신도의 역할과 앞으로 평협이 나아가갈 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한국 천주교회의 평신도들은 활발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더욱이 성직자와 수도자가 협력하는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한 만큼 평신도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사명이 있어요. 신앙은 나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거예요. 그 이웃은 교회의 안과 밖에 있어요. 다시 말해 나는 세상에 나가면 교회의 사람이고,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의 사람이지요. 이 말은 평신도가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신앙인으로서의 나와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인으로서

의 내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세례를 주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에 세례를 주려고 하는 경향이 짙다는 말이에요. 이 그릇된 고리를 우리가 끊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공부,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투철하게 하는 공부를 해야 하는 평신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봐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요. 인간 사회의 발전과 교회의 발전을 위해 공부하는 그러한 평신도가 돼야 해요.

우리 평협이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단체들이 해야 할 일이지요. 그 단체 자신이 그러한 양성의 장이 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각자가 교회와 인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해요. 세상의 복음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화되지 않아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야 해요. 내 신앙과 내 사회생활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지요. 



▲ 2010년 아시아가톨릭평신도대회

나눔

평신도 연구

‘한국 평신도 희년’ 그리스도를 드리내는 삶을 사는 평신도

정찬남 모니카 한국평협 사회사도직연구위원, 한국여성생활연구원장

한국평협은 2017년 11월 19일 12시 주교좌명동대성당에서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님이 집전한 교중 미사에서, 한국평협 설립 50주년 평신도주일 미사를 봉헌하며 ‘한국 평신도 희년’을 선포하고, 평신도들의 다짐과 구체적 실천 내용을 발표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할 일은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 선조들의 목숨 바친 신앙의 은덕만 기리고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신자 5,741,949명, 총인구 대비 10.9%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주교회의가 발표한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6에 따르면, 한국에 본당은 1,719개, 공소 740개가 있고, 성직자는 추기경 2명을 포함해 주교 39명, 한국인 신부 4,998명, 외국인 신부 164명 총 5,162명과 신자 5,741,949명(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인구 대비 10.9%로 지난해보다 0.2% 높아졌다. 성직자와 평신도, 교회 구성원 모두가 뜻을 같이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하느님 나라로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천주교 신자가 전 국민의 10.9%인 5,741,949명에 달하는 것은 국민 열명 중 한 명은 천주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평신도 희년이 선포된 일 년 동안 평신도 각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답게’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도록 다시 학습하고 연구하여 새롭게 자신을 봉헌하는 계기가

‘왜?’를 생각하는 습성이 생겼다

평협에서 2000년도부터 17년 동안 서울대교구 시노드, 전례분과위원, 교육분과위원, 노인분과위원, 사회사도직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자신의 발전을 위해 연구할 주제가 많음을 느낀다.

‘왜?’를 생각하는 습성이 생겼다. 매사에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왜일까?’를 보게 된다. 통신신학 6년 과정 중 5년을 공부했다. 학기에 한 번씩 열리는 하루 강좌를 참여하며 수많은 전국의 신자들이 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하느님은 하나하나 따로 생명을 주셨기에 각자의 사명과 소명이 다름을 인식하여야 할 것 같다.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였다. 이제 평신도들은 스스로 공부하여야 하며 편식하지 말고



평신도 회년

평신도 회년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

이창훈 알폰소 서울평협 기획홍보위원장, 가톨릭평화신문 기자

한국 천주교회는 지금 '평신도 회년'을 지내고 있다. 이는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한국평협) 설립 50주년이 되는 2018년을 평신도 회년으로 지내게 해 달라는 한국평협의 요청을 주교회의가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정확하게는 지난 평신도 주일인 2017년 11월 19일부터 올해 평신도 주일인 2018년 11월 11일까지가 평신도 회년이다. 평신도 회년을 맞아 회년이란 무엇인지, 평신도 회년을 지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평신도 회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뜻있게 지낼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

1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옛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레째 되는 날 곧 안식일에는 쉬어야 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느님이고 그래서 안식일은 하느님께 바치는 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너희의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탈출 23,12)이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섯 해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두지만 일곱째 해, 곧 안식년에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포도원을 가꾸어서도 안 되었다.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거두거나 열매를 맺은 포도를 따서도 안 되었다(레위 25,1-7). “일곱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너희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먹게 하고, 거기에서 남는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탈출 23,11). 안식년에는 또 남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했다(신명 15,1-6 참조).

회년은 안식년을 일곱 번 지낸 후에 맞는 50년째 되는 해를 말한다. 이 회년에는 안식년에 지켜야 할 일을 그대로 지켜야 할 뿐 아니라 안식일과 안식년 규정의 의미가 더욱 확장되어 적용된다(레위 25,8-55 참조). 그래서 회년은 쉼과 휴식을 넘어서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해,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고 자기 씨족에게 돌아가야 하는 해, 자유를 주고 해방을 선포하는 해, 기쁨의 해이자 거룩한 해다. “너희는 이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고 저마다 자기 씨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 해는 회년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해다”(레위 25,10-12).

회년이 거룩한 해인 것은 하느님께 바쳐진 해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 바친다는 것은 하느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시 하느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소와 나귀를 쉬게 하고 땅도 쉬게 하는 것, 빚을 탕감해 주고 땅

끌고루 먹는 습관을 다시 들여야 할 것 같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제대로 알아야 할 책임이 있다. 신앙은 생활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하느님에 대해 박식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서서히 평생 동안 꾸준히 학습하여야만 한다.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안해 본다.

평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평협은 신자이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동참하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환경에 의해 변화하고 성장하며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신자의 문화는 신자가 만들고 좋은 세상 만들기엔 앞장서야 할 사람도 신자이다. 하느님을 믿는 신자는 하느님에 대해 신에 대해 학습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신학자만이 신학을 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신을 믿는 사람은 신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종교인은 무엇이 다른가?

한국평신도회관이 설립될 수 있기를

나는 천주교인인가? 천주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평신도와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나에게 교회는 무엇이며 왜 믿는가? 믿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나의 믿음 행위는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청하고 무엇을 바라는가? 세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적인 사람인가?

교회 내 모든 평신도가 자신의 사명을 알고, 믿음을 바탕으로 생활을 잘 한다면 세상은 하느님 나라인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로 바뀔 것이다. 아쉬움이 있다면 5백만 신자가 있음에도

‘평신도회관’ 하나 없다는 것이다. 많은 기부자들도 장학금은 내는데 어찌 회관 하나는 생각도 못하실까? 나의 경우는 배운 것만 있어서 가르침으로 나누는 자원봉사자이기에, 가난해서 내놓을 수 없기에 조심스러운 마음이다. 그러나 ‘회관이 있으면 평신도에 관한 역사 도서관, 교육, 수많은 회의를 원만히 할 수 있을 텐데…’ 등을 생각해 본다. ‘한국 평신도 회년’을 맞이하여 한국평신도회관이 설립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한국평협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510호에 있다. 회관에는 하루에 1,000여 명이 드나들며 두 대의 엘리베이터가 숨가쁘게 오르내린다. 회관을 드나드는 사람 가운데 90% 이상은 신자일 것이다. 서로 눈인사라도 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는 지나치게 친절하고 모르는 사람을 대하기는 찬바람이 쐬는 날 정도의 무관심이다. 이 작은 실천은 이웃들에게 하느님을 알게 한다. 사랑은 작은 친절과 미소 하나에서 짙을 틈을 뚫는다. 가톨릭회관이기에……. 세상 모든 것을 주신 하느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없는 이웃에게 친절과 선행을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 평신도회년 기도문 상본

을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 종이나 몸 붙여 사는 이를 풀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를 주고 해방하여 본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 한마디로 제자리 찾기, 원상회복을 의미한다.

2 이 회년 제도는 모든 것의 원 주인이 하느님이시라는 신앙을 바탕으로 가난하고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회년이 온전히 시행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은 회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충만히 실현되었다고 믿고 고백한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초기에 나자렛 회당에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 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시고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다(루카 4,16-21). 그리고 당신의 말씀과 행동으로 완전히 실현하셨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렇게 단언한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빼앗긴 자들에게 자유를 선사하시고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눈 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제삼천년기』, 11항).

3 한국평협이 설립 50주년을 맞아 평신도 회년을 지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땅의 모든 평신도가 회년을 맞아 제자리를 찾아 원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실현하신 회년의 기쁨을 선포하는 가운데 회년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참다운 화해와 일치, 자유와 평화의 사도로 나서자는 것이다.

평신도의 제자리, 원상(原狀)은 무엇일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규정했다. 하느님 백성인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 수도자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삶의 양식과 신분이 다르지만 똑 같은 품위를 지닌 한 하느님 백성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평신도는 “교회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분명한 의식을 지녀야 한다”(『평신도 그리스도인』, 9항).

평신도는 이렇게 한 하느님 백성으로서 교회를 이루지만, 평신도에게는 평신도만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를 “세속성”(『교회현장』, 31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느님 백성의 일원인 평신도는 교회의 지체로서 성직자를 도와 교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세속의 현세 질서를 복음 정신으로 비추어 줌으로써 사회의 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명을 지닌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를 “마치 누룩과도 같이 내부로부터 세계 성화에 이바지하는”(『교회현장』, 31항) 것이라고 설명했다.

4 우리 평신도는 어떻게 회년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느님, 곧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

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완성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하느님이심을 참으로 믿고 고백하는가?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온전히 믿고 의탁하며 거기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회년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도록, 그래서 참다운 믿음으로 돌아가도록 초대한다.

우리 신앙에 대한 성찰은 올바른 믿음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올바른 믿음의 회복은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부와 권세와 영예를 우선적으로 섬기며 살았다면 이제 그런 관계를 청산하고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은 하느님과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 이유로 단절되거나 어긋난 이웃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나아가 자신과의 관계까지 올바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다. 회년 전대사는 죄로 멀어진 하느님과 이웃과 자신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내적이고 영적인 표현이 된다. 평신도의 회년이 회년 전대사의 은총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기쁨의 해가 되었으면 한다.

회년의 기쁨은 또한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 구약의 회년에서처럼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회년 기간에는 돈을 꾸어준 신자라면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집을 전세나 월세로 빌려준 신자들 또한 집세를 올리지 않거나 조금 줄여서 받는다면 이 또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회년의 기쁨을 나누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주위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보는 것, 북한이탈주민과 중국 동포들, 이주 노동자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은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레위 25,10)하는 회년의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회년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져다주시는 은총의 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말하자면 회년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회년의 정신을 실천하고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려면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분단과 대립에서 화해와 일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주님 은총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풀어나갈 길이 쉽지 않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기도가 절실히 요청된다. 한국평협은 지난해 평신도 회년을 시작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와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날마다 바치기로 다짐했다. 모든 평신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기도를 바쳤으면 한다.

평신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교회의가 평신도 회년을 선포하고 교황청이 회년 전대사를 부여한 사례는 세계 가톨릭교회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하다. 평신도 회년이 말이나 외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회년 정신의 실천을 통해 한국 천주교회의 쇄신과 발전에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한국평협 연수 참가기

위진명 엘리사벳 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문화교육팀장

한국평협 50주년 연수에 처음 초청받았을 때, 궁금하고 또 설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서 ‘평신도협의회’라는 말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평협에는 어떤 단체들이 있을까?, 주로 어떤 연령층이 많을까?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서운 요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1대 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이하 서가대연) ‘청년사도, 하나 되는 빛으로!’ 문화교육팀장 위진명 엘리사벳입니다.

지난 9월 15일과 16일, 1박 2일 동안 진행된 후반기 평협 임원 연수에 초청을 받아 참관하면서 보고 느꼈던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본격적으로 작성하기에 앞서 ‘청년 평신도’인 제 삶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 저 또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아세례를 받았고, 지인의 소개를 받아 7살 때부터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성당에 가는 시간은 제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주일학교 하계 및 동계 캠프, 성탄 축제 등 주일학교 행사참여와 성가대와 반주단 봉사를 통한 미사 참여를 통해 7년여 간 철없을 때였지만 순수한 어린이로 성당을 매주 다녔습니다.

그러다 서울로 교적을 옮기게 되면서 당시 저는 본당이 동네에 없던 터라 옆 동네로 한 시간 가량 버스를 타고 다니게 되었는데, 한 신부님으로부터 “늦게 올거면 아예 오지도 말라. 문 잠가 놓겠다.”는 말씀에 상처를 받아 6~7년여 간 냉담

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4년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교내의 가톨릭학생회를 만나게 되었고, 망치로 한 대 얻어 맞은 듯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가대연은 ‘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의 줄임말로 서울 소재 35개 대학교 내에 있는 가톨릭 학생회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고 있는 유기적인 연합회입니다.

제 젊은 평신도로서의 삶은 ‘서가대연’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주 서가대연에서 받는 웹자보 공지사항 중 벽화봉사 멤버를 모집하는 글을 보았고, 이 봉사를 하며 가대연 언니오빠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마친 어느 날, 한 언니가 제게 주일 6시에 대학생들이 함께 드리는 미사에 같이 가자고 이끌어주셨고, 그렇게 저는 서가대연 활동과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평협 50주년 연수에 처음 초청받았을 때, 궁금하고 또 설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서 ‘평신도협의회’라는 말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평협에는 어떤 단체들이 있을까?, 주로 어떤 연령층이 많을까? 마침 문화교육팀장으로서 이 연수에 다녀와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삶 속에서

신앙을 잃지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선뜻 가기로 했고, 의장님과 자리에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대전교구 교구장님이신 유홍식 라자로 주교님의 ‘평협 백년의 전망과 비전’ 특강과 교회, 사회, 아시아 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한 발표 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교님과의 질의응답 중 젊은이들과 함께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이 지금까지도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와 교회에서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교리교사, 성가대, 전례단으로 썩먹으려고 하기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청년이 되고 다시 돌아간 본당에서 청년을 교회 안에서의 평등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기보다 “너 왜 그렇게 큰 조직에 있으면서 여기는 안오려고 해?” “그래도 본당에 네 뿌리가 있는데…….” 혹은 “그 말은 꺼내지도 마!” 식의 이야기를 들으며 청년을 본당의 소비재로 여기는 것과 같은 ‘우리 본당이 잘되는 게 우선이야.’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저도 서가대연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던 터라, 이런 말들은 제게 상처가 돼버렸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본당이라는 것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돈 벌어야 한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톨릭학생회, 그리고 서가대연을 만나면서 ‘대학생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다시 이어나갈 수 있어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돌아보면, 단위대 가톨릭학생회와 서가대연 내에서의 다양한 전례적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들, 단위대 가톨릭학생회 회장, 서가대연 일꾼으로서 2년 동안 봉사한 시간들, 틈틈이 봉사하면서 다녀온 아시아청년대회, 청년성서모임연수, 해외봉사 등의 프로그램들에서 받았던 많은 은총들은 언젠가 다시 본당에 돌아가게 되면 밑바탕이자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2017년 11월 19일 ‘평신도 희년’을 맞이하였고 들었습니다. 이 1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평신도인 저희들도 삶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신도 희년을 맞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은총 가득한 자녀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신달자 엘리사벳
시인

봄 여름 가을 다 지나고 혹독한 겨울
그것도 새벽 그것도 마굿간에서
우리와 똑같은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것도 십자가 아닌지요

봄이 왔다고
연한 살 그대로 투박한 나무껍질을 뚫고 나오는 새잎
얼었다 녹았다 하며 새의 혀 같은 잎으로 나오시는 새잎

그것도 십자가 아닌지요

여름이 왔다고
그 잎들 태풍 폭염 천둥 번개로
맞았다 일어서고 기절했다 다시 일어나는 잎들

그것도 십자가 아닌지요

가을 잎들을 보세요
나무에게 줄 것을 다 주었다고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나무뿌리의 겨울한기를 덮으려 떨어지는 낙엽들

어서 오십시오 주님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오시는 분
잠시 십자가를 내리고 사뿐히 빛으로 오십시오
사람들이 앞드려 길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잠시 저희들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르바노(Urbano) 신학교 생활 체험기 3

그리운 교장 선생님, 몬시뇰 첸치

박정일 미카엘 원로사목자, 전 마산교구장 주교



필자 박정일 주교

지난 '우르바노(Urbano) 신학교 생활 체험기'(2)에서 우리 일행 3명(허인 바오로, 김영환 베네딕토 그리고 나)은 로마에 도착하여 베드로 대성전을 구경하고, 여름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신학교 별장이 있는 카스텔 간돌포(Castel Gandolfo)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우르바노 신학교 별장에 도착하였다는 데까지 이야기하였다.

카스텔 간돌포

카스텔 간돌포(Castel Gandolfo)는 로마에서 약 23킬로미터가량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다. 알바노 호수(Lago Albano)와 교황님 하계별장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고풍스러운 도시고 지대가 높으며 호숫가이고 숲이 울창하고 시원하여 하계



▲ 알바노 호수와 교황 별장

별장으로 적지라 할 수 있는 곳이다. 교황님이 교황청의 격무와 로마 시내의 뜨거운 열기(로마의 여름은 매우 덥다.)를 피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곳이나 이 별장에서도 일상적 업무와 순례자들의 접견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시기도 한다.

이 별장은 1628년 우르바노 6세 교황께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약 400년 동안 역대 교황들께서 사용하였다.

검소하시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13년 즉위 이래 지금까지 여름휴가를 위해 이 별장을 사용하지 않고 여름에도 항상 로마에 머물러 계시며 일반 업무는 물론 신자들의 접견과 일반 알현 등을 하고 계신다.

포교성성 장관의 80세 생신잔치에서.....



▲ 교황 별장 정원 일부

우르바노 신학교 별장은 교황 별장의 정원과 담 하나 사이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가끔 신학생들 사이에 교황님께서 산책하시는 모습을 담 너머로 보았다고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신학생들의 별장 생활 일과는 학업이 없을 뿐, 아침 묵상과 미사성제, 성체조배, 공동으로 성무일도 바치기 등 학기 도중과 별 차이가 없다. 물론 방학 중에도 외출이나 여행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락되었다. 전통 있는 우르바노 신학교의 규율이 매우 엄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당시에도 독일이나 프랑스 신학교들에서는 방학 동안 외국 여행이 허락되었었다.

방학 동안에는, 영성강화 외에는, 학업이 없기 때문에 운동과 휴식을 위한 많은 시간이 있었다. 정원이 넓어서 축구장, 농구 및 테니스 코트 그리고 수영장도 있어서 운동하는 데 매우 좋은 조건이었다. 나는 농구나 축구 등을 친구들과 어울려서 가끔 하였지만 수영은 거의 매일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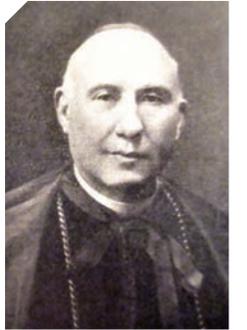
▲ 수영하는 필자 사진



▲ 다이빙하는 필자 사진

우리 일행 3명이 별장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된 9월 4일, 당시 포교성성

장관 푸마소니 비온디(Fumasoni Biondi, 1872-1960) 추기경의 80세 생신잔치가 벌어졌다. 여름 동안 추기경께서는 신학교 별장에 와 계셨다.(우르바노 신학교가 교황청 포교성성 직속 신학교이기 때문에 포교성성과는 부자 관계 같다 고나 할까!) 방학 중이어서 학생들이 연극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여 추기경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 푸마소니 비온디 추기경

마침 한국 학생 3명이 새로 도착하여 5명이 된 우리에게(그때까지 한국 학생은 유영도 디오니시오 신부와 신학교 3학년생인 백남익 디오니시오 두 사람 뿐이었다.) 한국적인 것을 보여 달라는 요청에 아리랑 노래와 한국 춤을 보여 드리려 둘(백남익 디오니시오와 김영환 베네딕토)이 춤을 추고 남은 셋이 노래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오르비에토 성체 기적 대성당 순례.....

방학 기간 중 학생들은 별장에 있는 동안 전 교생의 1일 단체 여행 또는 순례의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가 도착한 그 해에는 로마 북쪽 약 5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오르비에토(Orvieto)시에 있는 성체 기적의 성작보가 보존되어 있는 대성당을 방문하였다.



▲ 성체보 모신 함

로마에 도착하여 얼마 안 되어 하는 전교생의 외부 여행, 그것도 유명한 순례지를 방문하게 되니 기쁘기도 하고 표현하기 어려운 감격스러운 마음이었다. 간단하게나마 오르비에토의 성체 기적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참고가 될 듯하여 첨언한다.

기록에 의하면 1263년 어떤 보헤미아(현 체코

의 일부)인 베드로 프라가라는 신부가 성체성사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약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로마에 순례를 가서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귀국하는 도중 로마 북쪽 볼



▲ 교황 별장 앞 일반 일현 광경

세냐 지방(Bolsena = 로마 북부 지역)을 지날 때쯤 되어 다시 성체성사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였다. 하루는 그곳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는데 성체를 축성하는 순간 흰 제병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와 깔아놓은 성체포를 흥건하게 적셨다.

그 사실은 즉시 교황 우르바노 4세에게 알려졌다.(그때 마침 교황께서 오르비에토에 계셨다.) 교황님은 오르비에토의 주교를 통하여 그 사실을 세밀히 조사한 후 초자연적 기적이라고 판정하였다. 그런 일이 있은 후 교황께서는 당시까지 일부 지역에서만 지내고 있던 성체축일을, 전 세계적으로 대축일로 지내도록 명하셨다.

오늘날 성체강복 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성체 찬가'의 가사는 우르바노 4세 교황의 명으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께서 작사하신 것이다. 교황 우르바노 4세는 가히 성체성사의 교황이라고 불려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오르비에토 대성당은 이 거룩한 기적의 성체포를 보존하기 위하여 건축된 성당이다.

나라별 소풍에서 향수를 달래며.....

학생들은 방학 동안 전교생이 함께하는 한번의 단체 여행 외에 매주 또는 격주로 '소그룹' 소풍(피크닉)을 할 수 있었다. 한 번은 나라별 소풍(Gita nazionale=National picnic)과 까메라따별 소풍(Camerata=반) 소풍이다.

나라별 소풍은 글자 그대로 자기 나라 학생들

끼리 하는 소풍이다. 그때에는 마음껏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고 자기 나라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아들 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은 '나라별 소풍'날이 되면 으레 알바노 호숫가에서 한국식으로

밥을 하고 김치도 만들어 먹으며 한국 소식과 고향 이야기를 꽃피우며 향수를 달랠 수 있어서 좋아들 했다. 밥을 잘 짓고 김치도 담글 줄 아는 학생은 매우 인기가 매우 좋았다! 나는 음식 만드는 솜씨도 없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잘 하지 않는 편이어서 별로 인기가 없었던 것 같다.



▲ 전교생 순례 시 오르비에토 대성당 앞에서

까메라따별 소풍은, 같은 조의 여러 나라 학생들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준비해주는 음식을 지참하고 가까운 곳을 산책하거나 명소를 방문하는 것이 상례였다. 각각 다른 여러 나라 학생들이 함께 다니면서 이색적인 이탈리아의 풍경과 명소에 대하여 나름대로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등을 나누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반별(Camerata=10여 명의 각각 다른 나라 학생들의 모임) 소풍은 같은 반(조) 학생들이 함께 하는 소풍이다. 이때는 여러 나라 학생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자기 나라 고유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없고 학교에서 준비해 주는 음식을 가지고 가까운

곳을 산책하거나 명소를 방문하는 것이 상례였다. 여러 나라 학생들이 함께 다니면서 이색적인 이탈리아의 풍경과 명소에 대하여 나름대로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등을 나누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수단을 입고 축구를 하며.....

1950대 당시에는 로마뿐 아니라 이탈리아 전역에서 사제와 신학생들의 일상복은 수단이었다. 자는 시간 외에는 수단을 벗는 일이 없었다. 심지어 운동을 할 때나 소풍을 할 때나 여행을 할 때도 항상 수단을 입어야 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소그룹으로 소풍을 할 때는 바지(Pantalone=Pantaloon)를 입을 수 있게 교장이셨던 몬시뇰 첸치(Mons. Cenci)께서 특별히 허락하였다.



▲ 수단 차림의 축구 선수들

그러나 별장에 와 계시는 포교성성 장관 추기경의 눈에 띄이지 않게 하라는 조건으로!(혹시라도 연로하신 장관께서 학생들의 바지 차림을 보시고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우리는 소풍을 떠날 때와 마치고 별장으로 돌아올 때는 별장 뒷문을 사용하였다. 이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첸치 몬시뇰은 대학에서는 철학 교수였는데 상당이 진취적이었고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남달랐던 분이로서 모든 학생들의 존경을 받았다. 1950년대 우르바노 신학교 출신 사제들은 모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몬시뇰을 추모하는 이야기로 꽃을 피우곤 한다. 몬시뇰께서는 졸업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떠날 때 반드시 개인

적으로, 사제생활에 대한 아버지다운 당부의 말씀을 담은, 간단한 편지를 써주셨다. 나도 그 편지를 받아 고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편지를 어디에 두었는지 찾을 수 없어, 소개하지 못해 아쉽다.

3개월의 여름 방학을 끝내고.....

10월 초가 되어 로마 신학교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왔다. 로마의 여름방학은 매우 길다. 7월부터 9월 말까지 3개월이나 된다. 우리 3인이 로마에 도착한 것이 8월 17일이었으니 2개월 동안 별장에서 폭



▲ 교복 수단 차림의 학생 시절 필자 사진

쉬며 여러 나라 학생들을 만나 사귀고 이탈리아어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탈리아어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별장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고 설레는 마음으로, 자니폴로(Gianicolo) 언덕 성 베드로 대성전이 가깝게 보이는 '우르바노 8세로 16번지'에 위치한 우르바노 신학교에 도착하였다. 앞으로 사제가 될 때까지 7년 동안 살게 될 보금자리에...... 당시엔 신학생 기숙사는 2동으로 구교사(Vecchio Collegio)와 신교사(Nuovo Collegio)가 있었는데 나는 구교사에 있는 '제8 까메라따'에 배치되어 짐을 풀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의 로마 생활, 우르바노 신학교 생활이 시작되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ㄹ

깊고 눈부신 어둠

- 야고보란 이름의 사나이

구자명 임마쿨라타 소설가

그는 짙어가는 어둠 속에서 자꾸 몸을 뒤채었다. 독수리 발톱처럼 심장을 움켜쥐고 조여오는 두려움의 악력은 상상 이상의 것이었다. 며칠 전만 해도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웃음 띤 얼굴로 그리도 의연하게 헤로데의 판결에 응했던 그였다. 그는 자신이 누운 돌 침상 아래 어딘가에 놓여 있을 포도주가 든 가죽자루를 얼핏 떠올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초저녁에 밥을 넣어주려 온 간수는 슬그머니 자기 허리춤에서 술 자루를 꺼내 던져주며 말했다. “새벽을 위해 준비해 두게.” 한때 ‘천둥의 아들’이라 불리며 스승의 염려를 샀던 그가 제 급한 성미에 걸맞게 사도들 중 제일 먼저 스승 곁으로 가게 될 참이었다.

그는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천근같은 몸을 일으켜 자기 안의 빛마저 위협하는 적대적인 어둠과 정면으로 대좌했다. 지하 감옥의 밤은 무한 암흑과 절대 고독의 공간이었다. 어둠의 정령들이 그들의 가장 비극적이고 불온한 춤사위를 펼치는 곳이었으며, 체념을 부추기는 허망의 탄식에 어설픈 희망의 찬가 따윈 백없이 자리를 내어주는 곳이었다. 죽음을 목전에 둔 그는 한없이 두렵고 외롭고 서러웠다.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절규가 새나왔다.

“스승이시여, 굽어보고 계시나이까!”

그 순간 어둠의 장막을 뚫고 어떤 낮익은 장면이 하나의 환영처럼 홀연히 떠올랐다. 카야파의 무리들에게 잡혀가던 날 밤 겐세마니에서 기도하던 스승의 모습.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토로한 후 다시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셨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변민의 절정에서 숲이 되어버린 그분의 존재가 뿔어내던 불꽃, 그 불꽃의 그림자, 그 그림자의 광휘, 그 광휘 속의 검은 핵, 깊고 눈부신 어둠이던 스승의 고통……. 그때는 놀랍고 어리둥절해 설명할 길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는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가장 짙은 어둠만이 품고 있는 빛의 약속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침상 아래에서 포도주 자루를 찾아 들었다. 언젠가 스승이 물으셨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어 스승은 예언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이 그 잔을 마실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며 포도주 자루를 열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미소가 희게 빛났다.



새벽 세 시경 햇불을 들고 사형수를 데리러 지하 감옥으로 내려온 간수와 사형 집행인 클레멘스 알렉산드리누스는 죄수가 있는 방으로부터 이상스런 빛이 흘러 나와 복도 전체를 비추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등을 보이며 침상에 엎드려 있는 죄수의 검은 실루엣에서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몽환적인 광채가 번져나와 온 방에 은하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날 그의 순교를 지켜본 알렉산드리누스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개종하였다. 그리고 곧 그의 뒤를 따라 순교하였다. 



평신도 양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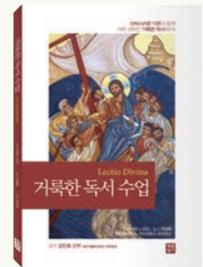


전달수 지음 | 가톨릭출판사
140×205 | 232면 | 12,000원

한 권으로 시작하는 신나는 신앙생활

국내외 사목활동에서 만난 사람을 비롯해 전례와 교리, 성경 인물과 성인성녀 이야기를 풀어낸 신앙에세이다. 미사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성경과 교리가 어려워 답답할 때, 신앙생활이 의무감과 무거운 숙제 같을 때, 열심히 해도 믿음이 흔들릴 때 마주할 만하다. 영적어둠은 성인들도 겪었던 일이며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임을 알려준다. 일상에서 신앙을 살아내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지 일깨워 생활 곳곳 하나님을 떠올리게 한다.

정리
류주희 편집위원



스티븐 J. 빈즈 지음
전경훈 옮김 | 생활성서사
152×225 | 248면 | 17,000원

거룩한 독서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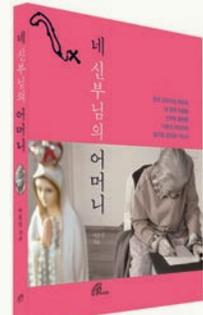
성경을 묵상하며 읽는 거룩한 독서(렉시오 디비나)에 이콘을 묵상하며 바라보는 거룩한 독화(비시오 디비나)를 더한다. '말씀을 보았다'고 생생하게 표현할 만큼 혼자서도 어렵지 않게 묵상과 관상할 수 있다. 예수님 일생에 해당하는 20가지 성경 말씀과 이콘으로 동·서방 교회 보화를 동시 체험케 하며 언어로 전달하는 교회 가르침을 시각적으로 이야기하는 북음서 같은 이콘을 바라봄으로써 성경 속 동일 사건 현장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참여토록 한다.



서공석 지음 | 분도출판사
146×210 | 208면 | 15,000원

그리스도인 그 정체성과 죽음과 희망

그리스도 신앙인의 정체성 및 인간의 죽음과 희망을 해석학적으로 성찰한 결과물이다. 이전 저술의 깊은 신학적 통찰 못지않게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오랜 기간 현대인의 감수성에 부응하는 신앙언어를 탐색하는 데 애써온 저자의 노력이 원숙한 필치 안에 담겨 있다. 친절하게 신앙언어를 안내하지만 쉽지 않은 내용이다. 신학 책이면서 묵상 서적으로 읽을 수 있다. 헌신적인 원로 신학자의 원숙한 사유와 성찰이 특유의 간결한 문체에 녹아 자비와 자유의 숨결이 흐르는 공간으로 초대한다.



이춘선 지음 | 바오로딸
153×200 | 236면 | 12,000원

네 신부님의 어머니

한국 교회사상 최초로 네 명의 아들을 신부로 봉헌한 이춘선 마리아의 일기와 편지와 기도시. 네 명의 아들, 한 명의 딸을 신부와 수녀로 봉헌한 어머니의 절절한 신앙 고백이다. 열악하고 힘겨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자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낸 한 신앙인이자 엄마의 모습이 일기와 편지글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저자의 기도시와 오세민 신부가 들려주는 어머니 이야기에는 깊은 신앙심과 모정이 담담하게 표현됐다. 소박하고 진솔한 감동을 가감 없이 전하기 위해 가급적 원문대로 실었다. 책 사이사이 저자가 쓴 편지, 아들 신부들에게 남긴 어린 시절 옷가지와 가족의 모습을 담은 화보가 들어 있다.



고종희 지음 | 방상만 신부 감수
한길사
128×188 | 592면 | 23,000원

명화로 읽는 성인전

알고 싶고 닮고 싶은 가톨릭성인 63인. 르네상스 미술 전문가인 저자가 대중에게 사랑받아 온 성인 63명의 생애와 업적, 순교 장면을 한데 모아 엮었다. 교회 두 기둥인 베드로와 바오로 두 성인을 시작으로 4대 복음사가 마태오·마르코·루카·사도 요한, 예수님 제자들과 세례자 요한을 비롯한 성인들, 스테파노 같은 박해시대 순교성인, 위대한 어머니였던 헬레나와 모니카, 당대 최고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수도회를 창설하고 개혁을 이끌어낸 프란치스코·베네딕토·이냐시오 로욜라부터 20세기를 살았던 성인까지 두루 다룬다.



이영석 지음 | 성바오로
149×211 | 376면 | 18,000원

예수처럼 부처처럼 성경과 무문관의 우연한 만남

예수회 신부인 저자가 불교 철학을 공부한 후 성경과 선승의 해설집 안에서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접점을 찾았다. '서로 다른 신앙을 지닌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종교체험'이라는 저자는 침묵의 지혜가 성경 말씀에 한 줄기 빛을, 성경에 표현된 사랑의 말씀이 공안에 생명의 물을 제공할 수 있다면 흥미로운 일이라고 말한다. 꼭지 끝머리마다 자리한 작가의 짙막한 시는 묵상의 감칠맛을 내면서 글 전체를 되새김질하고 음미하도록 돕는다.



영화 '조용한 열정'

시가 삶이고 신앙인 여자

이대현 요나 국민대 겸임교수 · 영화평론가

그녀는 세상이 자신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가기를 원했는지도 모른다.



드라마
2017.11.23 개봉 | 12세 이상 관람가
125분 | 감독 테렌스 데이비스

이것은 한 번도
답장하지 않는
세상에게 보내는
나의 편지
자연의 부드러운
당당함으로
전해주는
소박한 소식

시가 편지이고, 신앙인 여자. 그래서 삶이 그 속에 고스란히 스며 있지만 그것이 시라고, 자신이 '시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시는 "이것은 한 번도 답장하지 않는/ 세상에게 보내는 나의 편지/ 자연의 부드러운 당당함으로/ 전해주는 소박한 소식"일 뿐이다.

평생을 고향 집에 머물며 세상과 결별한 채 은둔자로 살아간 에밀리 디킨슨은 그 세월 속에 켜켜이 쌓인 영혼의 울림과 감정, 자연과 신,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독백으로 남겼다. 그녀는 혼자이면서도 혼자이지 않았고, 엄격한 청교도 집안에서 자랐으면서도 자유로웠으며, 실연과 고통 속에서도 평화와 안식을 발견했으며, 죽음 앞에서 영원을 믿었다.

그녀는 세상이 자신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가기를 원했는지도 모른다. "난 아무도 아녜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당신도 아무도 아닌가요. 그럼 우린 같은 처지인가요. 입 다물고 있어요, 사람들이 소문낼지 모르니까. - 아시다시피. 정말 끔찍해요, 유명인이 된다는 건 정말 요란해요, 개구리처럼 긴긴 6월에 존경심 가득한 눈을 향해 개골개골 제 이름 외쳐대는" 것이 싫어서.

그러나 소망과 달리 에밀리 디킨슨은 19세기의 '유명인'이 됐다. 그녀의 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외로움과 고통,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에 대한 관조와 체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항과 희망, 어떤 사람들에게는 애잔한 슬픔과 실존적 깨달음이 됐다. 시란 이런 것이다. 때론 수많은 이야기나 긴 설명보다 더 생생하게 각자의 삶과 느낌이 된다.

짧지만 깊고,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소박하고, 따뜻하면서도 지적인 1,775개 독백 가운데 생전에 세상에 발표한 단 7개를 빼고 모두 그녀가 묘비명에 썼듯 하늘나라로 "불러 가고(called back)" 69년이 지나서야 혹시나 세상이 자신을 기억하려 한



그녀의 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외로움과 고통,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에 대한 관조와 체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항과 희망,
어떤 사람들에게는 애잔한 슬픔과 실존적 깨달음이 됐다.





다면 “나도 후하게 판단해 주길” 바라는 그녀의 소망대로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시가 됐다.

우리 누구도 그녀의 마음과 생각과 느낌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녀는 “고독은 짙 수 없는” 것이며, 그 크기는 “그 파멸의 무덤에 들어가서 재는 대로 추축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니 우리도 미루어, 그녀의 시어들이 가진 상징을 통해 짐작할 뿐이다. 아니면 그것들을 나의 영혼과 가슴속으로 끌어들여 ‘나의 시’를 만들 뿐이다. 소설가 김훈은 “시를 읽을 때 내 마음은 시행을 이루는 언어와 그 언어 너머의 시적 실체 사이에서 표류한다.”고 했다. 그러다가 도착하는 것은 결국 나의 마음이다. 더구나 그 시가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설명하지 않은 한 여자의 평생을 기록한 ‘내면의 성찰’이라면.

1830년 12월 미국 매사추세츠 애머스트에서 태어나 56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에밀리 디킨

슨을 따라다닌 것은 이별과 고독, 질병의 고통과 시련이었다. 사랑에 눈 뜰 즈음 찾아온 시력 상실, 종교문제, 정치인인 아버지와의 가치관 차이, 늘 아픈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책임감, 아끼던 사람들과의 이별과 그들의 죽음, 말년에 찾아온 악성 신장염은 그녀를 세상보다는 자아 탐색의 은둔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압축된 언어로 솔직하게 표현했다. “사랑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인데도 “그 사랑을 자기 그릇만큼 밖에 담지 못함”을 애달파했다. 혼자 걷다 “세상 출세랑 아랑곳없고, 급한 일 일어날까 두려움 없이 혼자 살며, 홀로 빛나는 태양처럼 다른데 의지할 없이, 꾸미지 않고 소박하게 살며 하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길 위에 뒹구는 작은 돌에게 행복을 발견하기도 했다.

육체와 정신의 고통, 고독과 “죽음을 위해 멈출 수 없는” 시간 속에서 그녀가 원한 삶은 무엇

이었을까.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다면, 지친 새 한 마리 등지로 돌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 작은 도움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하면서도 아름다운 사명일 아닐까. 그녀가 말하는 “영혼의 햇대 위를 날아다니며 결코 멈추는 법이 없는 날개 달린 희망”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용기와 자유, 열정과 순수를 준 것일까. 그녀가 매일 하나씩 쓴 시는 어떤 형식이나 관습, 대상에 구애받지 않았고, 거침이 없었다. 타고난 감성과 언어표현 감각은 간결하면서 지적인 이미지를 낳았고, 19세기와 20세기의 문학적 감수성을 연결하듯 추상적 사고와 구체적 사물을 섬세하게 결합시켰다.

그녀에게서는 “구별할 줄 아는 눈으로 보면, 깊은 광기는 가장 신성한 감각”이며 “깊은 감각은 순전한 광기”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항상 그렇듯이 여기에서 우세한 것은 다수이다. 동의하면 제정신이지만 반대하면 즉각 위험한 존재가 되어 쇠사슬을 차게 된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녀는 스스로 쇠사슬을 차고, 자신의 영혼은 있을 곳을 선택했다.

그녀를 가장 온전히 만나는 것,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그녀의 시를 읽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신시아 닉슨 주연의 영화 <조용한 열정>도 ‘시’이기를 원했다. 테렌스 데이비스 감독은 에밀리 디킨슨의 삶을 담으면서, 극적 흥미를 위한 ‘스토리’도 ‘대사’도 애써 만들지 않았다. 소녀시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순간순간들을 그녀의 시로 압축했다. 마치 영상시집을 만들려는 것처럼.

연기와 대사가 아닌, 이미지와 내레이션(시)으로 빛어낸 에밀리 디킨슨의 삶과 감정이 어떤 묘사보다 명징하게 다가온다. 진실이란 때론 수많은 말보다 한 컷의 영상, 한 줄의 시에 얼마든지 담을

수 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영화는 대중예술이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탓할 이유는 없다.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는 에밀리 디킨슨을 영화 <조용한 열정>는 시로 이렇게 말한다. “모든 황홀한 순간엔 고통이 대가로 따른다/ 황홀한 만큼 날카롭고 떨리도록 살다간 영혼의 여인이었다고. 이보다 더 맑고 날카롭게 통찰이 있을까. “가을에 그대 오신다면 여름은 훌훌 털어버릴래요. 일 년 뒤 그대 오신다면 각 달을 공처럼 말아 서랍에 넣을래요.”보다 사랑의 감정을 솔직하고 직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대사가 있을까.



<조용한 열정>에서 새벽녘까지 혼자 시를 쓰고 있던 에밀리 디킨슨에게 오빠의 아내가 찾아와 말한다. “너에겐 시가 있잖아.” 그렇다. 그녀에겐 삶이 되고, 역사가 되고, 신앙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영화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 번 울린 시가 있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17년 한국평협 하반기 연수회 개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담당 조성봉 신부, 이하 한국평협)는 지난 9월 15~16일 대전교구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2017년 하반기 연수회를 개최했다.

한국평협 임원 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2018년도 한국평협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논의 및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의 평신도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가 '평협 백년의 전망과 비전'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특강에서 유흥식 주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천명한 평신도의 사명과 역할을 설명하며, 공의회 정신을 부족함 없이 실천한 우리 신앙 선조 순교자들의 삶을 상기시켰다. 유 주교는 "순교자들의 삶은 그 자체가 '복음 실천'이었다. 우리도 그분들을 본받아 삶의 기준을 항상 '복음'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상 복음화와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화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자고 하며, 앞으로 평협의 백 년이 이를 위한 노력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시간에는 교회 내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고 아시아 교회에서 평신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 발표 시간이 마련되었다. 발표에서 평신도들이 삶의 곳곳에서 사도직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참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이상적인 방법들이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교구 대표와 회원 단체 대표들이 그룹별로 모여서 한국평협 50주년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임원들은 올바른 평신도 사도직 수행을 염두에 둔 의미 있는 목표와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별히 이번 토의에는 서울가톨릭대학생연합회 대표 2명이 참여해 세대를 뛰어넘어 평신도 사도직과 한국평협 사업을 함께 고민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이번 하반기 연수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11월 열리는 한국평협 추계 상임위원회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 확정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대전가톨릭대학교 방문 일정이 있었다. 김유정 총장 신부는 연수 참가자들에게 대전 신학교에 관한 역사를 설명하며, 국내 사제 양성뿐 아니라, 몽골인 첫 사제를 배출하는 등 아시아 지역 사제 양성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대전 신학교의 노력을 알렸다.

파견미사를 집전한 대전교구 김종수 주교는 강론을 통해 "평신도들은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과 평신도의 활동이 곧 교회의 활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와 발전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역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 2017년 우리성가 공모 시상미사 봉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지난 11월 22일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2017년 우리성가 공모 시상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미사에서는 트리니타스합창단의 연주에 제11회 우리성가 작곡 공모 수상작이 미사곡으로 울려 퍼졌다.

올해 제10회 노랫말 공모와 제11회 작곡 공모는 각각 입선 2명 장려상 3명 우수상 2명 최우수상 1명이 선정되어 총 16명이 수상하였다. 각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는 ▲최미경(루치아), '성모성월의 노래' ▲김종완(라파엘), '당신의 빛'이다.

113편의 노랫말 응모작 가운데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성모성월의 노래'를 작사한 최미경 씨는 제9회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에도 최우수상에 선정된 바 있어 눈길을 끌었다.



제11회 작곡 공모는 제10회 노랫말 공모 수상작을 가지고 작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작곡 공모에는 김종완 씨가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종완 수상자는 "작곡가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은 작

곡한 곡이 많은 사람 앞에 연주되는 것이다. 특히 직접 작곡한 곡이 미사 전례에 연주되어 성전에 울려 퍼지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큰 영광이다."라고 수상소감을 발표했다. 시상식 후 작곡 공모 최우수상 수상곡인 '당신의 빛(작사 정경희 헬레나, 제10회 노랫말 공모 장려상)'이 연주되어 미사에 참여한 신자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선사했다.

미사를 주례한 조규만 주교(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는 "성가를 만드는 능력은 하느님께서 주신 특별한 달란트다. 좋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하느님을 향한 찬미를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우리성가 공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

자세한 수상 내역은 한국평협 홈페이지(<http://www.clak.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017 한국평협 추계 상임위원회 개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11월 24~25일 충북 음성 꽃동네 영성관에서 추계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주관(회장 길병석, 담당 서철 신부)으로 진행된 이번 상임위원회 개막미사는 청주교구 총대리 강희성 신부가 집전했다. 강 신부는 "초대 한국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평신도의 사도직 활동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평신도 희년 선포는 그간 교회에서 눈부셨던 평신도 활약과 복음화 업적 공로를 격려하는 의미"라면서 "희년 동안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교구 평협 및 단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가하여 2018년 사업계획과 ‘한국 평신도 회년’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회년의 정신을 살리는 사업으로 ▲회년 기간에 전·월세 값을 올리지 않기 및 줄여 주기 ▲아시아 지역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원격 입양 실시하기 등이 논의되어 회년 정신을 삶 속에서 구체화하는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한국평협은 상임위원회 이튿날인 11월 25일 배티 성지에서 ‘평신도 회년을 시작하는 평신도들의 다짐’을 발표했다. 다짐문 내용은 ▲창조 질서의 회복과 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 ▲낙태는 살인임을 천명하며 낙태죄 존치에 앞장설 것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특별히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관심을 갖고 배려할 것 등이다.

참가자들은 또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해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날마다 바칠 것 ▲가정·이웃·직장 교회와 사회에서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용서를 청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 등을 다짐하며 모든 평신도의 동참을 호소했다.

● 제34회 가톨릭대상 사랑부문 · 정의평화부문 선정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지난 11월 24일 제34회 가톨릭대상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톨릭대상 후보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수상자로 사랑부문 안여일 데레사(수원교구 별양동성당, 77), 정의평화부문 윤경일 아우구스티노(부산교구 좌동성당, 59)가 선정됐다.

사랑부문 수상자 안여일 씨는 마흔일곱 살에 받은 유방암 수술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을 이웃을 위해 쓰겠다고 다짐하며 많은 활동을 펼쳤다. 성모병원 호스피스, 한림대병원 원목실 등에서 봉사하며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벗이 되어주었다.



정의평화부문 수상자 윤경일 씨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2004년 국제구호단체 사단법인 ‘한끼의 식사기금’을 설립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최빈국을 돕기 위해 헌신했다. 현재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 정신에 입각한 빈민구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6일 오후 6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17 평신도 아카데미 공의회 과정 개강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담당 조성풍 신부, 이하 서울평협)는 9월 11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153명의 수강생과 함께 2017 평신도 아카

데미 ‘공의회 과정’을 개강했다.

공의회 과정은 평신도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과 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교회와 사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과정이다.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공의회 과정은 가톨릭 신학 대학 교수들을 강사진으로 구성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평신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난해까지 총 1,059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올해는 9월 11일 ‘보편공의회’를 시작으로 12월 18일까지 13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 서울평협 하반기 어머니학교 종강, 26명 수료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지난 11월 8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2017 하반기 어머니학교의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전체 수강생 및 봉사자들과 함께 종강미사를 봉헌했다.

이번 어머니학교는 지난 10월 11일 개강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5주 동안 신앙 안에서 어머니와 자녀가 더 나은 관계를 지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강의를 진행했다. 매 수강 후 이어진 그룹 나눔을 통해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털어 놓기도 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유익한 시간도 가졌다.

평협 담당사제 조성풍 신부는 종강미사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하느님을 믿고, 의탁하는 신앙의 자세와 체험을 전달하는 것이 신앙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어머니들을 격려했다. 또한 “자녀가 어머니들에게 선물인듯이, 어머니들도 자녀들에게 선물”이라면서,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미사 중에는 수료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총 수강생 31명 중 26명이 수료증을 수여받았다.

● 한국 평신도 회년 선포

‘한국 평신도 회년’이 선포됐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단체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주교회의에 회년 선포를 요청하였다. 주교회의는 지난 10월 2017년 추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내용을 승인하였고, 한국 교회는 올해 11월 19일부터 내년 평신도 주일인 2018년 11월 11일까지 ‘평신도 회년’을 지내게 된다.

이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평신도 주일인 지난 11월 19일, 명동대성당에서 신자들과 함께 ‘한국 평신도 회년’ 선포식 미사를 봉헌했다. 미사를 집전한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강론에서 회년의 의미를 전달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로운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사랑을 가족과 가까운 이웃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염두에 두며 평신도 회년을 기쁘고 힘차게 보내자고 격려했다.



서울평협 권길중 회장은 미사 중 진행된 선포식에서 한국 평신도 회년을 맞이하여 평신도들이 실천할 내용을 담은 실천 다짐문을 봉헌했다. 실천 다짐 내용

은 ▲희년의 정신과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지향하는 정신 운동 ▲복벽 형제들의 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신심 운동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실천과 희년의 정신을 반영하는 구체적 실천 운동(쉬는 교우 회도 권면, 이웃과 화해, 가난한 사람 돌봄 등)으로 구성된다.

신자들은 희년 선포에 따라 교황청 내사원의 교령에 따른 전대사 조건을 행하면 전대사를 받게 된다.

지역교회, 특히 국가 교회 차원에서 평신도들이 평신도 희년을 지낼 수 있도록 주교회의에 건의해 평신도 희년을 지내는 일은 세계 가톨릭교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이번 희년 선포는 선교사의 도움 없이 평신도 신앙 선조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한 한국 교회의 독특한 역사를 잇는 역사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순교자현양대회 및 교구청 축복식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곽하형)는 지난 9월 19일 인천교구청 마당에서 인천교구 순교자 현양대회와 교구청 축복식을 했다. 교구장 정신철 주교와 150여 명의 사제단 그리고 5,000여 명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묵주기도를 시작으로 순교자 현양미사와 교구청 축복식을 진행했다. 인천시 유종복 시장 및 교구평협 곽하형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날 정신철 교구장은 강론에서 인천교구청사의 각방 이름을 인천교구에서 나온 순교자들의 이름으로 정했다고 말하며, 심조이 바르바라 피정의 집, 박순집흙, 이안나홀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대강당도 지난해 5월 30일 서거한 최기산 주교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영성체 후 묵상으로 한덕훈 신부가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옥중 서간을 낭독했다.

● 성모순례지(성모당) 기공식

지난 10월 13일 인천교구청(송림) 광장에서 인천교구 성모순례지(성모당) 기공식 미사가 있었다. 정신철 교구장과 사제단 그리고 평협 임원을 비롯한 400여 명의 신자가 모여, 미사 전에 묵주기도를 바치고 1부 미사, 2부 기공식을 가졌다. 성모당의 건축면적은 494.41제곱미터이며, 지상 1층(11.5m)의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진다.



기공식에서는 배희준 성모당 전담 신부의 감사인사와 건축위원장인 김성만 신부의 경과보고, 하랑그룹 김성일 대표의 공사개요 설명이 있었으며, 정신철 주교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서 성모순례지 대지 축복식과 시삽식이 있었으며, 주교의 장엄 강복과 인천교구 성모순례지 조성과 봉헌을 위한 기도로 기공식 미사를 마쳤다.

● 백석 위령 미사 및 묘지이장 축복식

인천교구는 지난 11월 2일 위령의 날을 맞아 백석 하늘의 문 성직자 묘역에서 교구장 정신철 주교

와 교구 사제 40여 명 집전으로 평협 임원을 비롯한 1,400여 명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선종 사제 및 모든 연령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였다. 더불어 미사 중 인천지역에서 활동 중 선종한 '파리 외방 선교회' 요셉 마라발 사제와 요한 세레자 마라발 사제의 묘지 이장 축복식을 함께 거행하였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수원교구 평단협 성경골든벨 개최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9일 교구청 주차장에서 교구 평단협 소속 26개 단체 회원과 그 가족 4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경골든벨'을 실시했다.



영성지도 이근덕 신부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행사는 교구장님의 사목교서인 '말씀과 성사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쇄신'을 주제로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성

경경시대회와는 사뭇 다른 형태의 '성경골든벨' 행사를 통해서, 각 가정의 화합과 소공동체 상호 간의 열린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성경골든벨'은 참가자 전원이 'OX 퀴즈'로 예선전을 치르고, 예선을 통과한 50명의 결선 진출자들이 성경문제에 주관식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후의 1인이 된 가톨릭마라톤동호인연합회 김연희(바실라, 철산 본당) 씨는 이근덕 신부가 제출한 마지막 문제를 맞춰 골든벨 우승자가 되었다. 우승자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주어졌다.

이후 총대리 이성호 주교 주례,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미사가 봉헌됐다. 이 주교는 강론을 통해 "오늘 성경골든벨 행사는 교구장 사목교서 말씀처럼 말씀과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쇄신하고 소통하자는 것"이라면서, "하느님의 말씀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삶 안에서는 실천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다. 하지만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완전한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면서,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새기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 수원교구 2017 하반기 총회장연수 개최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10월 21일 교구청 지하대강당에서 6개 대리구 각 본당 총회장 및 임원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하반기 총회장 연수'를 개최했다.

신임 총회장에 대한 '표장' 증정을 시작으로 수원교구 소공동체 월간지 '외침' 홍보(교구 복음화국 부국장 정진만 신부), '젊은이의 혼인에 대한 사목적 배려' 강의(교구 복음화국 국장 이근덕 신부), '수원평협' 앱 출시에 대한 설명(평협 기획부장), 우리말 「로마 미사경본」 제3표준판 해설(교구장대리 문희종 주교), 파견미사(교구장 이용훈 주교 주례) 순으로 진행되었다.

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강론에서 "18세기 후반부터 발명된 기계 및 증기 기관 등으로 생산 기술 변혁이 일어났고 그에 따른 사회 조직의 큰 변화인 제1차 산업혁명에서, 2차(전기·석유 등으로 동력 이용) 및 3차(컴퓨터와 인터넷 네트워크 보편화) 산업혁명을 거쳐, 이제 인공지능기술 및 사물인터넷 시대인 제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었다."면서, 이에 따라 "2018년 교구장 사목교서는 '급변하는 세상에서의 새로운 선교'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제·수도자 성소 현황을 설명한 후 "수원교구는 지금까지의 청소년·소공동체·노인 등 '연령별·계층별 사목'에서, 앞으로는 하나의 큰 그물로 엮어 올리는 프로그램인 '통합적 사목'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하여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효수 회장은 10월 개최되는 이주민 축제에 참석하여 이주민 공동체 소속감을 높이고 상호 문화교류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서 천주교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모임에는 단체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2016년 12월 2일 교구 인가를 받은 의정부교구 가톨릭평신도영성연구소 박문수 소장이 모임에 첫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공부와 수련, 실천을 통한 평신도 사도직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회원들 각자의 실제적 변화 체험들이 연구소 설립의 동기가 됐다."고 단체 소개를 했다.

●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17년도 정기총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지난 11월 11일 의정부 교구청 3층 회의실에서 교구 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한효수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오늘 정기총회에 참석한 분들께 감사드린다. 지난 1년 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 평단협 단체장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한 해를 잘

마무리했다. 앞으로도 의정부교구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화 담당신부는 교구 내 평신도 단체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는 1. 성원 보고 2. 회장 인사 3. 2017년도 각 단체 사업실적 보고 4. 2018년도 각 단체 사업계획 5. 감사 보고 6. 2018년도 평단협 주요 일정 보고 7. 신임 회장단 선출에서 한효수 현 회장과 장해진 현 부회장, 김기세 현 감사가 다시 선출되었으며 성서백주간 이희 대표가 임기 2년의 신임 총무로 임명되었다.

재선된 한효수 회장은 2013년 10월부터 의정부교구 애덕의 모후 레지아 단장으로 역임하면서 레지오 단원들과 소통의 자세로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다. 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단체장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이기헌 교구장님을 중심으로 함께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실천하는 회장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감사한 신앙생활을 할 것임을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교구 선교사목국장 장재봉 신부가 순례에 지도사제로 동행하여 매일 일정을 미사로 시작하였고, 성지순례 후 저녁이면 지역 문화체험과 신앙체험을 나누며 초겨울의 찬바람을 따스한 온기로 가득 채우고 돌아왔다.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청주교구 평협, 제19회 평신도 도보성지순례 개최**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길병석, 담당 서철신부)는 지난 9월 23일 연풍성지에서 제19회 평신도 도보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청주교구 신자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부터 시작된 순례는 문경새재 1·2·3관문을 통과하여 수옥정까지 이어졌는데, 중간에 3관문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다.

연풍성지에 도착한 순례단은 십자가의 길, 성체조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부산평협 일본 오사카 26성인 성지순례**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도용희, 담당 손삼석 주교)는 11월 10~12일 2박 3일간 일본 오사카, 교토, 고베 26성인 발원지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2017년 시복되어 복자품에 오른 타카야마 우콘 기념성당을 순례 중 부산평협 회장 도용희 회장은 "신앙과 권력 중 신앙을 선택하여 향년 63세 일기로 선종하기까지 부귀영화를 버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타카야마 우콘 복자의 일생에 큰 감동을 받았다. 다가오는 평신도 희년을 잘 준비하자."고 말했다. 2박 3일 성지순례는 우리 선조가 목숨 바쳐 지켜낸 신앙을 후대에도 잘 이

배 등을 했으며 오후에는 연풍성지 야외성당에서 교구장 장봉훈 주교 주례 파견미사로 하루 행사를 마무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순례가 순교 성인들의 영성을 가슴으로 느끼고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반성과 자비, 용서의 은총을 청하는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교구 선교사목국장 서철 신부는 “최양업 신부님을 비롯해 신앙 선조인 순교자들은 모든 고통을 인내로 견뎌내고 사랑으로 이겨낸 분들”이라면서 “순교자들의 인내와 믿음, 사랑을 본받아 참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하자.”고 말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창작뮤지컬 ‘순교자의 딸 유섬이’ 공연



마산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특별 기획된 창작뮤지컬 ‘순교자의 딸 유섬이’(주최 마산교구, 주관 마산평협)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2016년에 시극을 완성하고 1년의 창작뮤지컬 준비 기간을 거쳐서 지난 10월 19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서울 공연 4회, 진주, 거제, 창원, 마산 공연과 추가 앵콜

공연까지 9회의 공연을 진행했다. 9,000여 명이 관람하여 감동과 영성과 열광적인 관심과 재미까지 모두가 하나 되는 그야말로 축제의 잔치였다.

교구평협은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유섬이의 유배길 순례를 통한 제작발표회를 거쳤고, 평협 위원과 배우 그리고 제작진까지 일치와 화합을 담금질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교구민이 한 마음이 되어 기적같이 4억여 원의 공연기금조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유섬이는 호남의 사도 복자 유항검의 딸로서 9살의 나이로 거제도의 관비로 유배를 와서 71세까지 동정을 지키며 정결한 삶을 살았다. 유섬이의 삶은 ‘한국 평신도 희년’을 사는 평신도에게 참 신앙과 삶의 커다란 깨달음을 전해준다.

25년을 토굴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살았고 20년 동안 지극한 양모 병간호를 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세상의 빛이 된 진정한 평신도의 이웃이며 벗이다.

교구는 이 작품을 통하여 사회의 복음화와 문화의 복음화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무관심을 관심과 참여로 이끌어냈고 교회작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며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 교회사목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 작품이야말로 ‘복음의 기쁨’이고 ‘사랑의 선물’이었다. 타 교구에서 소식을 듣고 초청공연을 요청하고, 교구에서도 재공연을 요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고생한 만큼 기쁨과 행복이 흘러넘친다.

또한 성공적인 공연으로 거제 송곡마을 유섬이 묘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행정지원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연의 무형효과에 감사한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한반도 평화특강

광주평협(회장 나현식, 담당사제 김정용 신부, 이하 광

주평협)은 지난 9월 16일 영주동성당에서 교구 신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 배치의 진실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특강(고영대 공동대표, 평화와 통일 여는 사람들)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드 배치를 적극 반대하고 남북 간에 평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정부의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서명 운동도 펼쳐졌다.



● 주교님과 함께하는 도보성지순례

광주평협은 지난 9월 23일 소록도 일원(12.2km)에서 1,400여 명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저는 곳곳이 걷고 당신 길에서 제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습니다.”(시편 17,5)를 주제로 주교님과 함께하는 도보성지순례를 개최하고 순교자현양미사를 봉헌하였다.



소록도는 한센인들의 아픈 사연을 안고 있는 곳이며, 오스트리아에서 파견된 두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여 더욱 의미 있는 순례의 시간이 되었다.

● ‘평신도 아카데미’ 리더십과정 제1기 수료

광주평협은 지난 9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매주 월요일, 10주 과정) 평신도 44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신도 아카데미’ 리더십과정 제1기를 진행하였다.



이번 리더십과정은 각 본당 사목협의회 및 교구 제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하느님 나라 건설과 교회 발전을 위해 복음화와 사도직 활동을 충실하게 이끌어갈 평신도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우리 교구의 미래상’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강의와 조별 토론 및 발표로 운영되었다.

주차	주 제	강 사
1	개강미사 특강 “우리 교구의 미래상”	옥현진 주교
2	Open Space “나는 평신도 리더인가?”	강성숙 수녀
3	평신도 사도직 사명	국춘심 수녀
4	교회봉사자의 자세와 섬김의 리더십	최성식 교수
5	생명 수호와 생명 나눔	김명섭 신부
6	현대사회의 변화와 교회	조재연 신부
7	유사종교의 실상과 대응	김정용 신부
8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	강주석 신부
9	본당 공동체성 회복	김인국 신부
10	특강 “교구장 사목비전과 사목지침” 수료미사	김희중 대주교

● 2017년 평신도대회

광주평협은 지난 10월 21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교구 평신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평신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지난 3년의 「본당의 해 I」을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되는 「본당의 해 II」를 준비하는 기회로 계획하였으며, 쌍촌동 본당의 「말뚝 봉사」 실천사례 발표와 평협 나현식 회장의 「본당의 해」 - 지난 3년, 앞으로 3년」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이어 교구장 사목교서 「본당의 해 II」 사목 중점사항에 대한 분임토의와 발표가 있었으며,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집전의 파견미사로 마무리되었다.



● 한국 '평신도 회년' 선포식

광주평협은 지난 11월 19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각 본당 사목협의회 임원 300여 명이 모여 “새 복음화의 증인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요한 15,16)라는 주제로 ‘평신도 회년’(2017.11.19 ~ 2018.11.11) 선포식을 가졌다.



나현식 회장의 ‘평신도 회년’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었으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이자 광주대교구 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가 회년과 전대사 수여를 선포하였다. 이어 평신도 대표자와 참석자 모두 함께 실천

다짐을 하며 회년 정신을 이해하고 ‘평신도 회년’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 지구별 직무연수

광주평협은 11월 4일부터 11월 26일까지 각 본당 사목협의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지구별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직무연수는 ‘교구장 사목교서’(사목국장 김정용 신부)와 ‘사회사목과 사회복지’(가톨릭사회복지회장 최기원 신부)를 주제로 한 특강으로 이루어졌으며, 교구의 사목방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본당사목 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평단협 회장단 및 본당 사목회장 합동연수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15~16일 천호성지 피정의집에서 평단협 임원들과 본당 사목회장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연수를 개최하였다. 평신도 사도직 제단체와 본당 소개가 있었고, 아가페에서는 의미 있는 친교의 장이 마련되었다.

둘째 날에는 교구 설정 80주년을 보내는 전주교구의 평신도가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교구장 김선태 주교의 ‘평신도에 관한 가르침’이라는 주제의 특강은 참석자 모두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 자치교구 설정 80주년 기념 세미나,
‘답게 살겠습니다’운동 선포식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지난 10월 28일 교구청 강당에서 주교와 사제단, 한국평협 권길중 회장, 전주교구 평단협 단체회원들과 본당 사목회장 등 8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자치교구 설정 80주년을 기념하며 ‘평신도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교구 선포식을 개최했다.



1부에서는 ‘교회 안과 세상 안에서의 평신도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사제와 평신도의 발제가 있었다. 2부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지정토론으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우리들의 소박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수도자와 평신도의 발표가 진행된 후, 자유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교구장 주교님 앞에서 전주교구 평단협 한귀석 회장과 참석자 모두가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을 거행하였다.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사회교리학교(제3기) 개설 운영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고용삼, 이하 제주평협)는 평신도에게 사회교리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가르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성찰하여 신앙생활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사회교리학교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제주평협은 지난 9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12주간에 걸쳐 사회교리학교를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주까지 10차에 걸쳐 실시되었고, 95%가 넘는 교육 이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제 남은 2주 수업 후는 수료식을 끝으로 사회교리학교를 마치게 되는데 평신도 회년을 맞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회교리학교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 평신도 회년 선포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교황청에서 한국평협 평신도 회년 선포 건의를 받아들여 평신도 회년이 선포되고, 전대사가 허락됨에 따라 제주교구에서는 평신도 주일인 지난 11월 19일(평신도 주일) 주교좌 성당에서 교구장 강우일 주교 주례로 평신도 회년을 선포하였다. 이 자리에서 평협 회장의 선창으로 ① 평신도와 평신도 사도직의 올바른 이해와 사도직 수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② 회년의 정신으로 복녜 동포들의 자유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③ 가정, 직장, 사회 각 분야에서 생태적 회개의 삶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며 ④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열정적인 사도생활의 증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또한 내년도 평신도 주일인 11월 11일까지 1년간 모든 평신도들에게 전대사 조건으로 ‘대정성지(정난주 마리아 묘소)와 함덕 김기량 펠릭스 순교자 현양비’를 방문하여 기도하게 되면 전대사를 받도록 허용되었다. 이 밖에도 도내 전 본당에 현수막을 일괄 제작하

여 부착함으로써 홍보에도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회년에 따른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평신도 주일 간담회 개최**

제주평협은 평신도 주일과 회년 선포에 따른 기쁨과 향후 회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다짐 차원에서 11월 19일(평신도 주일) 저녁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 문창우 주교가 주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평협 자문위원을 비롯하여 본당 사목회 총회장과 교구단위 단체장, 그리고 평협 상임위원과 여성연합회 임원 등 70여 명이 넘게 함께 했다. 평신도들의 역할 강조는 물론 회년에 맞는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내년에는 평신도들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격려와 다짐이 있었다.

● **골롬반 신부들과 간담회 개최**

제주평협은 지난 11월 30일 도내 골롬반회 신부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교구 원로 신부들을 비롯하여 자문위원과 평협 임원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그동안 제주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신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골롬반회 신부들은 1934년부터 제주에 부임해 열악하고 혼란스러웠던 4.3 격동기 등을 거치면서 천주교를 뿌리내리도록 앞장서 왔을 뿐 아니라 성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라는 법인도 설립하여 지역발전과 가난 퇴치에도 앞장서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골롬반회 신부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마리아사업회
(포콜라레운동)

● **포콜라레 <새가정운동>, 2017 '새가정학교' 성향**

한국 포콜라레운동의 가정 부문 대중운동인 <새가정운동(New Families)>이 매년 가을 주최하는 '새가정학교'가 지난 10월 세종시(세종특별자치시)와 포항에서

각각 열렸다.

'가정, 사랑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10월 6~8일 세종시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열린 새가정학교에는 158명이 참석했다. 또한 '위로'라는 주제로 10월 20~22일 포항 갈평 피정의 집에서 열린 새가정학교에는 100명이 참석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새가정학교는 담화, 경험담, 그룹 모임 등을 통해 혼인과 가정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새롭게 인식하고, 복음적 삶의 방식에 따라 참된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부부 대화' 시간에 부부들은 아름답고 고요한 자연 속에서 깊은 내면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결혼 30년차의 한 참가자는 "권위적이고 완고한 남편과 살며 많이 힘들었는데, 남편이 학교 기간에 많은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깊은 부부 대화를 하며 용서를 구하는 남편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면서 소감을 나누었다. 결혼 9년차의 한 부부는 "그룹모임 때 같은 세대와의 모임에서는 공감과 위로를, 다른 세대와의 모임에서는 세대가 달라도 부부가 서로에게 바라는 점은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하여 놀라웠다."고 말했다.

● **포콜라레 '일치를 위한 사회 포럼' 제40회 모임**

한국 포콜라레운동의 '일치를 위한 사회 포럼(대표길정우 전 의원)'이 지난 11월 제40회 모임을 가졌다. 이 포럼은 포콜라레운동이 2008년 9월 시작한 분기별 모임으로, 정치, 사회 부문에서도 보편적인 형제애를 실현하려는 취지 아래 포전·현직 국회의원 및 각계 전문가들, 관심 있는 시민들과의 만남과 대화의 장으

로 마련되어 왔다.



'경계(境界)를 넘어선 일치 운동'이라는 주제로 11월 9일 국회 본관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형제애와 인류의 일치를 추구했던 이탈리아 가톨릭 정치인으로서 현재 시복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지노 조르다니(1894~1980)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십여 년간 연구해 온 김민혜 박사의 강연이 마련됐다.

● **포콜라레 무료 진료소, '행복마을' 논산에도 개원**



한국 포콜라레운동의 무료 진료소 '행복마을'이 수원과 대구에 이어 충남 논산에도 개원했다. 지난 11월 19일 논산 부창동 성당에서 처음 열린 논산 행복마을은 내과, 외과, 치과, 피부과 의사 5명과 간호사 7명, 약사 3명의 의료진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지에서 온 40여 명을 진료했다. 포콜라레운동의 총청 지역 회원들도 봉사자로 나서, 미용, 다과, 의류, 생필품 코너를 열기도 했고 앞으로 통역 봉사자 등 각종 봉사자와 물품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월1회 매월 셋째 일요일에 열리게 되는 <논산 누르미 행복마을>은 논산의 옛 이름인 '누르미', 곧 '누런 산'이라는 뜻의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주 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열리는 무료 진료소인 행복마을은 2003년 9월 20일 수원 청명고등학교에서 첫 진료를 시작했고, 대구 행복마을은 2008년 12월 설립된 바 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 **한국 빈첸시오 가족위원회(NCVF) 창립**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한국 이사회는 지난 9월 23일 수원 성 빈센트 드 불 자비의 수녀회에서 빈첸시오 사랑의 딸회, 사랑의 씨앗 수녀회, 성 빈센트 드 불 자비의 수녀회 등 빈첸시오 성인 관련 4개 단체가 모여 한국 빈첸시오 가족 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빈첸시오인 카리스마 400주년' 행사에서는 3개 수녀회 250여 명의 수도자와 빈첸시오인 회원 100여 명이 참가하여 '빈첸시오 비전 선언문'을 채택했다. 또한 '가난한 이에 대한 봉사'와 빈첸시오 성인의 영성을 현재에 전파하고자 하는 특강이 있었다. 특강 후 2018년 가족위원회 활동계획 등을 토의하였으며, 담당사제 김영환 신부의 파견미사로 마쳤다.

전국 가톨릭 경제인 협의회

● 2017년 전국 가톨릭 경제인 협의회 전국회원 피정



전국 가톨릭 경제인 협의회(회장 윤대인, 담당사제 임인섭 신부)는 지난 11월 3~4일 대구대교구 한티순교 성지에서 대구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회장 김무권 요셉) 주최로 전국회원 피정을 개최했다. 이날 전국 임원회의에서는 전국 가톨릭 경제인 협의회 총회일자(2018년 1월 26~27일, 광주대교구)와 2018년 전국 회원 피정개최 교구(인천교구)를 확정하고, 2017년 상반기 회계보고 결의 후, 대구 가톨릭대학교 김정우 총장 신부의 '변환기의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들었다. 이후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의 집전으로 미사가 봉헌되었다. 이번 전국회원 피정은 서울을 포함하여 인천, 의정부, 대구, 부산, 청주, 광주, 마산, 제주 등 9개 교구 중 7개 교구 61명이 참석하였으며, 전국 회원 간의 사랑과 친교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한국 가톨릭 시각 장애인 선교 협의회

● 점자 전례서 추가 보급

한국 가톨릭 시각 장애인 선교 협의회(회장 윤재송)는 지난 10월 시각 장애인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하여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점자

'성경', '가톨릭기도서', '예비신자교리서'를 발행했다.



이는 협의회가 2006년부터 주교회의의 지원을 받아 펼쳐온 점자 전례서 발행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에 보급받지 못한 신자들과 새 신자들을 위하여 추가로 제작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각 장애인 신자들은 미사 전례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하느님 말씀에 맞닿아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신자들의 노력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가톨릭 여성 단체 협의회

● 한국 가톨릭 여성 단체 협의회 연수회



- 여성 존재에 부여된 성소의 의미와 역할을 위한 Open Space

한국 가톨릭 여성 단체 협의회(회장 김명자, 담당사제 김정용, 이하 한가협)에는 지난 10월 17일 광주대교구청 연수관에서 전국 회원 130여 명이 모여 연수회를 가졌다.

이번 연수에서는 대주제를 '여성 존재에 부여된 성소의 의미와 역할'로 하였으며, 참여자 스스로가 소주제를 선정하고 토론방을 결정하고 실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나의 талан트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여 그 талан트를 선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신선하고 한편 진취적인 Open Space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소주제로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동참하자 ▲리더 전문 양성 교육 기회 부여 ▲마르타와 마리아의 역할 균형 ▲신앙교육과 현실적인 학교교육간의 갈등 ▲공동체의 주인 의식 등등 17개의 주제가 선정되었다.

각 소주제에 따른 제안에 대해 모두가 참여하여 이슈 또는 실천 가능한 우선순위를 선정 공유하고 Action plan을 짜봄으로써, 이런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일을 한다면 스스로 자발적인 역할을 찾아 기쁘게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가협의 담당사제 김정용 신부는 "평신도 여성들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각 교구의 담당 사제들과도 공유하겠다." 말했다.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

● 세나투스 평의회 총회 개최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단장 류해석, 담당사제 하성호)는 지난 11월 26일 대구대교구청 내 가톨릭 교육원 대강당에서 2017년 세나투스 평의회 총회를 개

최했다. 세나투스 평의회와 교구 내 꾸리아 단장 등 350여 명이 행사에 참가했다.



오전에는 각 꼬미시움에서 추천한 모범 브레시디움 중 선별한 9개 브레시디움을 초청하여 모범 브레시디움 활동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선교, 회도, 브레시디움 운영, 레지오 확장, 봉사활동 등의 방면에서 특색 있는 활동을 전개하는 브레시디움들의 사례를 통해 꾸리아 및 브레시디움 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참석한 꾸리아 단장들의 많은 호평이 있었다.

오후에는 평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2017년 사업평가를 김문식 프란치스코 세나투스 부단장이 진행했으며, 이어서 2018년 활동지침 및 활동계획을 류해석 세나투스 단장이 발표했다. 활동주제로 사무엘 상권 3장 10절의 말씀인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를 채택하여 '신앙의 순종'을 기꺼이 고백하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서 하성호 담당사제 주례로 파견미사를 봉헌하고 행사를 마쳤다.

한국 매리지 엔카운터

● 2017년 한국ME 하반기 정기총회

한국ME 협의회는 지난 10월 21~22일, 서울 장충동 베네딕도 피정의 집에서 한국ME 대표팀, 제1부대표, 제2부대표, 감사팀, 7개 상임위분과, 전국 15개 교구 대표팀 총 51명이 참석하여 아시아회의 참석에 대한 경과보고를 했다. 또한 2017년 교구별, 분과별 현

황 분석 및 향후 계획과 2018년 세계ME 50주년 행사 참석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다.



● 디퍼주말

한국ME 협의회는 지난 11월 10~12일 서울 장충동 베네딕도 피정의 집에서 153차 디퍼주말을 실시했다.



이날은 지도사제 한 명과 발표부부 한 쌍의 진행으로 참가부부 18부부, 참가 사제 4명이 참석하여 자신을 더욱 깊게 살펴보고 부부 안에서 하느님을 더욱 깊게 체험하여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게 하는 ME 봉사자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 한국ME 역대 대표팀 간담회



한국ME는 지난 11월 15일 등촌동 ME 만남의 집에

서 한국ME 역대 대표팀 부부 및 사제 23명이 참석하여 한국 ME 40주년 가족모임 결과보고 및 50주년 세계대회 참가 논의를 했다. 또한 향후 한국ME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가톨릭
노동 장년회 전국협의회

● ‘양질의 노동’ 캠페인 진행

한국 가톨릭 노동 장년회 전국협의회(회장 남명수, 이하 가노장)는 지난 10월 7일 ‘양질의 노동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World Day for Decent Work)을 기념하여 서울을 비롯해 인천, 대전 등지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노장은 국제 가톨릭 노동 장년회(WMCW),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노동조합연맹(IFTU)과 함께 매년 10월 7일을 양질의 노동(Decent Work)의 날로 정하고 2008년부터 이 캠페인을 세계 각국에서 펼치고 있다.

인간은 노동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노동으로 가정을 만들며, 교육을 지원하고 의료보호에 다가선다. 가노장은 8시간 노동, 8시간 여가, 8시간 휴식, 그리고 그중에서 일하는 장소에서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임금수준, 개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은퇴 후의 삶과 평생학습의 기회가 제공되는 노동을 양질의 노동이라고 말한다.

한국 가톨릭 노동 장년회는 ‘양질의 노동’에 관한 권리로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있으며, 캠페인 진행은 각 교구별 다르게 진행하고 있다.



‘다움’으로 되돌아가는 우리의 약속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답게 살겠습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자기쇄신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웃도 나처럼 소중하고 사랑받아야 할 대상임을 깨닫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가정공동체를 넘어, 교회공동체와 사회공동체로 확산하는 사랑의 선순환 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 교회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것을 극복하려는 자기변화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사회의 아픈 곳을 마주하는 용기, 통렬한 자기반성과 따뜻한 시선으로 ‘더불어 행복한 생명의 삶’을 추구하는 실천 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펼치고 있는 실천운동입니다.

각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부터 시작하여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사회공동체에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지향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서상돈



요한
장면



베아트리체
최정숙



프란치스코
김익진



바오로
김홍섭



‘모범적인 평신도 삶’ 전파 운동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주관

불꽃이

20세기를 살아간
다섯 사람 이야기

향기가

되어

- 김익진 프란치스코
교육가, 사상가, 문필가.
《동서의 피안》, 《내심낙원》 등
많은 번역서와 기고문을 남겼다.
- 김홍섭 바오로 법관이자 가톨릭 사상가.
청렴한 생활, 신앙과 양심에 따른 바른 재판으로
‘사도 법관’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 최정숙 베아트
리체 제주가 낳은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 평생 고
향 제주의 교육을 위해 몸 바쳤으며 의원을 열어 가
난한 이들의 진료에도 힘썼다. ■ 서상돈 아우구스티노 대구대목구 초기의 대표적 평
신도. 일생을 교회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노력했고 국제보상운동 등 나라의 재건과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 장면 요한 정치가이자 교육가, 문필가. 국가의 발전에 기여
했다. 제1공화국 국무총리와 부통령, 제2공화국 국무총리를 지냈을 뿐 아니라 교회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Editor's Letter

또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를 하는 때입니다.

바둑 기사는 끝내기를 잘하고, 진 판일수록 다시 두어 보는 복기(復碁)를 한다던데, 『평신도』 지난 호들을 꺼내놓고 책장을 넘겨 봅니다. 2016년 봄 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감각에 어긋나지 않는 좋은 잡지를 만들고자 힘쓰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설부른 다짐 같고 꾸며낸 기어(綺語)가 아니었나 싶어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철따라 훌륭한 평신도 회장님들의 인터뷰 글을 읽으며 철부지 같은 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반갑고 고맙고 기뻐했습니다. 편집장 직무를 내려놓으며, 좋은 글을 써주신 모든 필자와, 함께 애써주신 편집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구상 세례자 요한 시인의 신앙시집에 나오는, 제 마음 같은 시로 마감합니다.

주님!

제 영혼은 오늘 한낮도
공중에 띄운 연처럼
당신 나라를 찾아 헤매다가
회오리바람에 줄이 끊어져
어디론지 사라져버렸답니다.

주님!

제 영혼은 이 밤도
마치 달을 쳐다보고
짓어대는 강아지처럼
대답도 없는 당신을 향해
경경대고 끄끙댁니다.

편집장 배봉한 세례자 요한 올림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에 관련된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catholic.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2017년 12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 주소
서울평협	염지유	로사	clas@clas.or.kr
춘천평협	유효현	알렉산델	hyohyeon7013@daum.net
대전평단협	윤정분	아네스	tjclass@hanmail.net
인천평협	유병수	멜키올	mko0204@hanmail.net
수원평협	서덕희	미카엘라	pyonghyop@casuwon.or.kr
원주평협	백정현	임마누엘	obdo@obdo.co.kr
의정부평단협	최태용	레오	choy1902@hanmail.net
부산평협	전영주	바오로	libys@hanmail.net
청주평협	이상철	방지거	howareyoulee@naver.com
마산평협	최명숙	안젤라	clacms@hanmail.net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전주평단협	유광용	대건 안드레아	teleto60@naver.com
제주평협	강수미	도미니카	enjoy7508@hanmail.net
꾸르실로 한국협의회	황웅진	헨리코	hwjin70@naver.com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운동)	최석균	마태오	maongchoi@hanmail.net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김영철	마티아	ssvpk@hanmail.net
한국 가톨릭 시각 장애인 선교 협의회	김정현	도로테아	webmaster@blindmission.or.kr
한국 가톨릭 성령 쇄신 봉사자 협의회	문호	토마스	younamedia@hanmail.net

공지 사항

평신도 원고모집

한국평협이 개편 발행하는 계간 『평신도』는 교회 내 각종 정보와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들의 소식으로 엮는 종합정보지입니다. 『평신도』에서는 열린마당 코너의 생활수필에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원고의 양은 200자 원고지 10매입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